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 영 애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2018년 월 일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완

이완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완



본 연구는 절기 예배 무용 안무를 위해 신학과 무용을 함께 전공하고 14년에서 20년 경력의 무용단 리더로 안무, 활동해온 다섯 명의 안무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 연구이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 요소 즉, 절기 예배 무용에 대한 의미와 효과, 창작방법 및 움직임 유형, 음악, 의상, 소품사용, 단원 훈련방법, 기타로 나누어 인터뷰하였다.

절기 예배무용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절기 예배 무용 창작은 8가지 단계 (첫째, 절기에 대한 이해, 둘째, 묵상 및 기도, 셋째, 주제 및 방향 설정, 넷째, 음악선택, 다섯째, 움직임 창작, 여섯째, 소품의 특성 결정, 일곱째, 의상 디자인 및 색상구성, 여덟째, 단원훈련)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절기 예배 무용 창작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원 및 유래와 특성에 대해 성경적, 신

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절기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작을 표현해야 한다.

셋째,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안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메시지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을 안무로 구성한다.

넷째, 음악선택은 많은 사람의 선호도보다 분별력 있게 하며 절기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한다.

다섯째, 소품 사용은 성경을 기초로 각 절기의 의미에 적합한 소품을 사용한다.

여섯째, 의상의 디자인 및 색상은 성경과 절기, 교회력에 근거하고 의상의 디자인에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관객이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도록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성 있는 의상이 되어야 한다.

절기 예배무용가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안무가들과 달리 각 절기가 지닌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무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무용을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방향을 잡아 간다 그리고 안무 창작을 위한 요소 즉 주제, 소품, 음악, 의상선택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낸 숙련된 무용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무용 전공자는 신학적인 배경 연구가 필요하며 무용 비전공자는 무용에 대한 움직임 훈련이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절기 예배무용 안무를 위해 안무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연구로 그쳤으나 후속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이론과 현대 흐름에 맞게 적용된 절기 예배무용의 모범적인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본다.

【주요어】 이스라엘의 절기, 교회력, 절기 예배무용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5
제 2 장 절기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절기의 의미	6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의미와 종류	10
제 3 절 교회력의 의미와 종류	19
제 3 장 절기 예배무용의 의미 및 유형	33
제 1 절 예배무용의 의미	34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예배무용	37
제 3 절 역사적으로 행해진 절기 예배무용	42
제 4 장 절기 예배무용가들의 창작 접근법	47
제 1 절 각 무용단 리더의 인터뷰내용	47
1) A팀 리더	49
2) B팀 리더	57
3) C팀 리더	62
4) D팀 리더	72
5) E팀 리더	78
제 2 절 절기 예배무용 창작접근법 연구	84
1) 절기에 대한 이해	84
2) 묵상 및 기도	85
3) 주제 및 방향설정	85
4) 음악 선택	86
5) 움직임 창작	87
6) 소품의 특성 결정	89
7) 의상 디자인 및 색상구성	91
8) 단원 훈련	92

제 5장 결 론	93
참고문현	95
ABSTRACT	98



표 목 차

[표 2-1] 가나안식 명칭의 달력	8
[표 2-2] 바벨론식 명칭의 달력	8
[표 2-3] 이스라엘 날짜와 절기	9
[표 3-1]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와 의미	35
[표 3-2]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와 의미	35
[표 3-3] 성경에 나나난 무용의 히브리 용어와 의미	36
[표 3-4] 절기와 축제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와 성경 구절	38
[표 4-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47
[표 4-2] 인터뷰 내용 구성	47
[표 4-3] 각 절기와 관련된 주제 및 메시지	86
[표 4-4] 절기 예배무용을 위한 곡	88
[표 4-5] 각 절기에 따라 사용된 소품의 의미	90
[표 4-6] 각 절기에 따라 사용된 의상의 색상과 의미	9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목적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¹⁾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많은 경우에 방관자처럼 또는 구경꾼처럼 드려진다고 지적한다. 예배는 의식이 아닌 생동감으로 가득 차야하며, 예배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대한 축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축제와 기쁨이 있었다. 신약시대의 예배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²⁾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재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영광 돌린다. 또한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안의 통치를 소망한다.³⁾ 그리고 시편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무용의 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도들이 그를 찬양하게 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그에게

1) 에이든 토저. (2006).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p.67.

2) 이광희. (2003).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예배현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평택신학대학원 석사논문, p.9.

3) 로버트E. 웨버. (2006).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서울: CLC, p.189.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 드리라”라고 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속에는 무용에 대한 언급이 예배 행사와 관련된다고 나오는데⁴⁾ 그러한 무용은 결혼식, 성인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지로 가는 행렬 같은 축제의 일부분으로도 있다.⁵⁾ 구약시대와 같이 예배무용의 중요성은 근래와서도 인식되고 있다.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는 예배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 거룩하신 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그는 예배 예술이 충분히 사용되면 예배 안에서의 종교적 힘이 엄청날 것이라 말하면서 예배 예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⁶⁾ 특히 예배무용의 경우 가사와 선율, 무용동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 된다.⁷⁾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저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명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서 명절로 지킨다. 그러나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분명히 다르다. 이스라엘의 민족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특별한 목적으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나온다. 이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다. 레위기 2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한다.

한국 교회도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크리스마스,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절 등 몇 가지 절기들이 있다. 이러한 절기들은 근본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념하고 표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p.20.

5) 딕 아담스, 다이안 아파스톨로스. (2002). 『종교와 무용』. 김명숙역. 당그래 출판사, p.239.

6) James F. White. (2000).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p.104.

7) 앤 스티븐슨. (2012). 『춤, 몸으로 예배하다』. 유아람역, 서울: 예수 전도단, p.169.

중요한 절기로 예배무용의 필요성은 장소희(2003), 이지연(2005), 김종희(2005), 이한나(2010), 최지연(2017)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다. 대부분 기독교 무용 단체들이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교회 무용팀 중 일부는 영상을 보고 준비하여 공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기 예배 무용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전공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만을 바탕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신체와 기량으로 춤의 표현이 완전하지 못해 회중들에게 은혜를 떨어 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워십댄스 교육기관이나 전문 단체가 공연한 영상을 흉내 내므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충분히 소화하지 못함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 무용전공자들은 예술성과 테크닉의 정교함은 있으나 절기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 이해가 부족하고 테크닉 위주인 경우가 많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다소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절기 예배는 때에 따라 깊은 의미 보다는 기쁨과 축제가 강조되어 절기의 의미와는 조화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절기 예배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장복(1994)은 교회력의 형성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원근재(2003)는 교회교육에 있어서 절기 교육과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장영미(2015)는 사순절, 부활절 중심으로 유아의 신앙을 위해 절기를 가정과 교회에 연계시켜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주연(2003)의 “성서를 통한 예배무용의 적용방안”, 박은영(2005)의 “예배무용의 특성연구: 성서와 현황을 중심으로”, 이소영(2010)의 “기독교 예배무용 움직임의 체험인식과 창작활용에 관한 연구”, 한재선(2014)의 “성서에 나타난 무용의 유형과 현황연구”에서는 예배무용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나타난 무용을 통해 절기 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박영애(2010), 김은혜(2016)는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를 살펴보고 히브리어 용어해석을 바탕으로 예배무용의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은아(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단체들이 활동한 기독교 무용의 내용을 다루며 절기 때 행해진 예배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명경

(2001)은 “움직임으로 드리는 대안 예배 유형 연구”에서 절기 예배무용으로서 한국무용의 정재를 적용하여 성탄 주일에 무산향, 성령강림 주일에 무고, 부활 주일에 아박무를 창작 안무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직접 절기 예배무용에 대한 안무를 위한 연구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절기에 대한 개념과 교육, 유형,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여 소개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해 접근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신학과 무용을 함께 전공한 안무자들을 통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고 어떻게 안무에 반영하고 적용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 면접연구로, 그 외에 저서, 논문, 학회지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와 함께 인터넷 자료를 참고했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았다.

둘째, 교회력에서 지키는 절기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예배 무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넷째, 성경에 나타난 절기 예배무용의 용어와 유형들을 알아보았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행해진 절기 예배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섯째, 무용과 신학을 전공한 5명의 심층 면접을 통해 절기 예배무용의 안무한 접근법을 알아보았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본 연구에 있어서 한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기 예배무용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 연구대상은 신학과 무용을 함께 전공하고 14년~20년 경력의 무용단 리더로 안무, 활동을 해 온 예배무용가들로 선정하였다.

둘째, 성경에서 절기 예배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절기 때 쓰여진 무용이나 움직임을 바탕으로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 살펴보고, 그 외에 미쉬나⁸⁾, 탈무드⁹⁾ 등에 나온 내용을 알아보는데 그쳤다.

셋째, 안무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절기 예배무용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은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8) 랍비 유다 한나시(Rabbi Judah Hannasi; AD135~219)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3세기 초 티베리아에서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미쉬나는 탈무드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유대 구전 율법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법전이다.

9) 유대교의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등에 대한 랍비의 생각을 기록한 문헌이다.

제 2 장 절기에 대한 이해

제 1 절 절기의 의미

성경에는 절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나온다. 첫째, ‘모에드’(מועד)로 임명된 시간(Appointed time), 임명된 만남(Appointed meeting)이라는 의미다.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 레위기 23장 2절 하반 절에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둘째, ‘하그’(חג)로 춤추다(to dance), 기뻐하다(to dance), 기념하다(to celebrate), 빙빙 돌다(to move in a circle), 순환하다(to circulate)라는 의미다. 위에서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절기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두고 불리는 명칭이며, 명절과 축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요소인 ‘춤추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다. 레위기 23장 6절에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고 할 때, 무교절의 절은 절기로 ‘하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룩한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킨다.¹⁰⁾

레위기 23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 하니라”를 직역하면 내게 성별되어 다 함께 모일 나 여호와가 정한 절기라는 뜻이다. 성회(Convocation)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라 코데쉬(מִקְרָא קָדְשָׁה)’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으로 공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을 가리킨다.¹¹⁾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유월절(4-5절), 무교절(6-8절), 초실절(9-14절), 칠칠절(15-22), 나팔절(23-25절), 대속죄일(26-32절), 초막절(33-34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는 수전절(성전 재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과 에스더9장 26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부림절(유다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기원된 절기)이 있지만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절기들과 달리

10) 강성구. (2001). 『모에드와 하그』. 서울: 서로 사랑, p.5.

11) 제자원. (1991). 『그랜드 종합주석 2』. 서울: 성서교제 간행사, p.789.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설립한 절기들이다.

성경의 절기들은 농사적인 절기 의식들과 종교적인 절기 의식들이 함께 어우러져 여호와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의식들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양력 10월에 이른 비와 함께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의 절기도 함께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유월절을 비롯하여,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등의 절기들이 있다.¹²⁾

성경에는 유월절을 아빕월에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만, 유대달력으로 첫 달인 니산월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어서 혼란스럽다. 성서 상에는 춘분과 추분 모두 신년의 시작이 각 시대에 따라 문화적 혹은 종교적 목적에 따라 달리 지켜져 왔다. 유대달력은 달(moon)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쓰는데, 한 달은 29.5일이며 1년은 354일이다. 이것은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과 매년 11월의 차이를 보인다. 결국 3년이 지나면 33일, 즉 태양력과는 거의 한 달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문제는 윤달을 추가함으로 3년에 한 번씩 한 달의 차이가 나는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 유대 달력은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추가 한다 열두 번째 달인 아달월에 윤달인 ‘아달2’ 월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니산월과 아빕월에 유월절이 된다.¹³⁾

첫째, 가나안식 명칭 방법인 아빕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달력 명칭으로 주로 계절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빕월(4월, 출애굽기13:4, 23:15, 34:18, 신명기16:1)은 보리 이삭이 익어 가는 달, 시브월(5월, 열왕기상6:1,37)은 꽃이 만발한 달, 에다님월(10월, 열왕기상 8:2)은 모든 강물이 가득 차는 달, 불월(11월, 열왕기상6:38)은 비가 오는 달 등의 의미를 통해 농사를 위한 시기에 대한 개념이 이 시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¹⁴⁾

12) 장재일. (2012).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상』. 서울: 큐란 출판사, pp.24-25.

13) 류모세, 전계서, p.38.

14) 상계서.

[표 2-1] 가나안식 명칭의 달력

양력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가나안명	아빕 월(출1:3~4, 23:15)	시브 월(왕상6:1, 37)	-	-	-	-	에다 님월(왕상8:2)	불월(왕상6:38)	-	-	-	-

둘째, 바벨론식 명칭으로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의 이름이다. 이러한 달력의 체계는 AD.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부터이다. 이 이름은 주로 포로기 이후 문서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스가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달의 명칭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번역함으로 달들의 명칭을 새롭게 배열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명칭 가운데 약 7개만이 성경에 언급된다.¹⁵⁾

[표 2-2] 바벨론식 명칭의 달력

양력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바벨론식명칭	니산(Nissen) [느2:1, 예3:7]	리야르(Layar)	시반(Sivan)	탐무즈(Tamuz)	아브(Av)	엘릴(Ellil)	티슈레이(T'shrei)	혜슈본(Heshbon)	키슬레(Kislev)	티벳(Tevet)	슈밧(Shavat)	아다르(Adar)

셋째, 유대인들은 달들을 숫자로 호칭하는데 서수로 명칭 하는 방법이다. 이는 출애굽기 직후에 혹은 출애굽기 기간의 사건을 기록한 책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포로후기까지 계속 되었다. 이 방법은 출애굽 다음 달인 아빕월을 첫 달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출애굽기13:4, 신명기16:1)

15) 이성훈, 전계서, p.26.

아마도 출애굽을 기준으로 신년이 바뀐 것은 국가의 독립에 대한 강한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일 년을 12개의 달로 나누고 있다. 숫자로 되어있는 달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하 25장 1,3,8,25,27절에 나온다.¹⁶⁾

성경에 나타난 절기, 날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⁷⁾

[표 2-3] 이스라엘 절기와 날짜

시기	양력	절기	날짜
건기	4월	유월절	14일
		무교절	15-21일
		초실절	안식후 첫째 날
	5월	칠칠절	
	6월	오순절	6일
	7월	-	-
	8월	-	-
	9월	-	-
	10월	나팔절	1일
		대속죄일	10일
		초막절	15-21일
		11월	-
우기	12월	수전절	25일
	1월	-	-
	2월	-	-
	3월	부림절	15일

16) 이성훈, 전계서, p.26.

17) 류모세, 전계서, p.37.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의미 및 종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와 각 절기가 가진 의미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월절(Passover, Passover)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사흐”로 ‘넘어간다’, ‘뛰어넘는다’라는 의미가 있다.¹⁸⁾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다. 장자의 재앙이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사람의 장자와 가축까지 치시는 재앙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양을 취하여 그 피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뿐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셔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뿐렸고,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모든 애굽의 장자는 죽음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다.

성경에서 유월절에 대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12:14),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레23:5),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신16:1)라고 말하고 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

18) 원용국. (1979).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p.119.

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 지나갔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¹⁹⁾

이러한 유월절 절기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성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구원 받은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요1:29)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셨던 것이다(고전5:7).²⁰⁾ 뿐만 아니라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발라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듯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며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우리주님이 참된 유월절 양으로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밝히므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인 유월절 어린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 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유월절은 장차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견하며 일어난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해야 한다.²¹⁾

19) 강병도. (1986).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2 레위기~신명기』. 서울: 기독 지혜사, p.135.

20) 제자월. 전계서, p.789.

21) 전정진, 전계서, p.247.

2) 무교절(**הַצְבָת הַחֲמָצֵה** 하그하그 함마초트, Day of Unleavened Bread)

무교절은 ‘하그 함마초트’로 여기에서 ‘하그’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룩 없는 떡의 축제일’을 나타낸다. 무교절은 유교병 대신, 무교병을 7일간 먹으면서 출애굽의 급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출23:14-15).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과 결합되어 있으며, 첫 날에 성회로 모이고, 7일 끝나는 날에 다시 성회로 모인다. 이 일주일간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화제(레23:1-8)를 드렸다.

출애굽기 34:18-22에서도 중앙 성소를 방문하는 세 절기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언급하기도 했다.²²⁾ 이 절기 동안에는 무교병이라는 고난의 떡(신16:3)을 먹어야 했다. 여기서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들은 고난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무교병은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현신과 봉헌을 해야 함을 상징한다.²³⁾

3) 초실절(**הַבְּרִית מִיְזָמֶן** 하비쿠림, Day of the Firstfruits)

초실절은 아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곡식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맺은 이삭을 몇 단 잘라 와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다. 처음으로 거둔 곡식 단을 드리기 때문에 첫 곡식 단 절기라고도 부른다.

레위기 23장 9-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네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22) 전정진, 전계서, p.247.

23) 상계서, p.789.

것이요”라고 하였다.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제일 처음 추수한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명령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 수확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소산을 거두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맷가 없이 거저 주시는 땅에서 거두는 수확이므로 마땅히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절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초실절은 거룩한 첫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시작된 후 맞는 안식일 다음 날이 첫 열매 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바로 주일날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 그 해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맥추절은 초실절과 같은 절기이지만 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제물이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점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거두는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 따라 다르게 불린 것이다. 초실절에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제사장이 그것을 소제물의 뎅어리를 당기고, 밀고, 위로, 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렸다(레23:11). 또한 이와 함께 어린양을 번제로 드렸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햇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²⁴⁾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드리기까지 과정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의 모형이다. 실제로 초실절을 통해 예언된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빠짐없이 실현되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자(히1:6),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골1:15), 창조의 시작이다(계3:14), 또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다(마1:23-25).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다. 초실절 곧 첫 열매 드리는 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볼 때 첫 열매를

24) 장재일, 전계서, pp.243-245.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번 곡식 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첫 열매 절기에 제일 처음으로 거둔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듯이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대대적인 추수가 이어지게 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이미 2천 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바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대적인 추수이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증언한다. 25)

4) 칠칠절(חנוך נח 하그 샤푸오트, Feast of Weeks)

칠칠절의 히브리어 이름은 ‘샤푸오트’이다. 샤푸오트는 쇠부타의 복수형인데 주일들(Weeks)의 절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칠칠절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첫 열매 절기로부터 일곱 주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첫 번째 단을 드린 지 일곱 번째 안식일후에 지켜졌기에 다른 곳에서 칠칠절이라고 불렸다(출34:22, 민28:26).²⁶⁾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3대 절기를 맞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뵈옵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²⁷⁾

칠칠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고 하였다. 즉,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

25) 강성구, 전계서, pp.101-103.

26) 전정진. (2005).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pp.243-244.

27) 강성구, 상계서, p.108.

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 이러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절기는 곡식 추수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절기로 지켜졌기에 출애굽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으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오십’에서 유래된 오순절(행2:1)로 불렸다. 이유는 첫 열매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첫 소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고 (레23:16-18), 또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여 노동을 금했다. 그러나 오순절은 무교절과 달리 하루만 성회로 지키도록 했는데 아마도 오순절을 지켰던 때가 추수로 인하여 바빴던 시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한편 성경은 밭모퉁이의 곡식과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남겨두라는 규례를 침가하고 있다(레23:2)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의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개인적인 첫 열매 기간이었다.²⁸⁾ 그러므로 이날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추수를 끝마친 후에 예배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비를 표현하였다(신14:27-29, 16:11).

특별히 칠칠절은 신약시대 오순절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날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행 2:1-4).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기로 하여 교회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사신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였다.²⁹⁾ 곧 칠칠절은 신약시대 오순절의 성령강림절로서 신약시대

28) 제자월, 전계서, p.791.

29) 강성구, 전계서, p.119.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5) 나팔절(הַרְמָתָה מִ' 용 테루아, Day to Blow the Trumpet)

나팔절에 대해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 이니라”,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말한다. 일곱째 달의 첫날은 숯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었다. 즉, 나팔을 불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보통 나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 또는 신호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나팔을 부는 주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 분 앞에 기억되고 구원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다.³⁰⁾ 특별히 신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³¹⁾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데살로니가전서4:16)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지상에 살 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유월절은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통해 나타난 구원을 말한다면 나팔절은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6) 속죄일(הַמִּתְעָמֵד מִ' 용 키푸르,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속량을 받는 날이다. 레위기 23장 27~28절에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30) 류모세, 전계서, p.168.

31) 강병도, 전계서, pp.135-136.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고 하였다.

속죄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음 키푸르의 원뜻은 ‘감싸주는 날, 덮어주는 날’로서, 속죄일은 죄가 숨겨지는 날이다. 그리고 무죄한 동물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서 그 동물이 흘린 피의 값으로 인간의 죄가 속량 되었다.³²⁾ 레위기 23장 26-32절에 보면 일반 백성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다. 즉 이들은 금식과 회개를 수반하는 여러 가지를 행해야 했다. 이날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레23:29-30). 그리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레16:29), 하나님께 예배와 묵상에 전적으로 사용하며 그 절기로 영적 안식을 표상하는 까닭이다.³³⁾ 이날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두 마리의 염소로 행해지는 특이한 예식이 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린다.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 후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내졌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하고자 하셨다. 첫째로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회개하지 않는자의 죄는 대속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로 속죄를 위해서는 대 속죄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속죄의 대속제물, 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심령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³⁴⁾ 히브리서 9장 25절-26절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5-26) 보여준다.

32) 강성구, 전계서, p.141.

33) 김용철. (2011). 『이스라엘 절기의 고유성과 현대적 적용』. 석사논문, 성결 신학대학원, p.25.

34) 제자원, 전계서, p.792.

7) 초막절(הַמִּשְׁמָרֶת 하수코트,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은 수장절(출23:16, 34:22)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른다.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레23:34).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도 7대 절기들 중 가장 마지막 때이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칠일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고 한다. 초막절에는 임시거처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광야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³⁵⁾

초막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쑥코트(**כְּתָמֵת**)의 번역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에 첫 번째로 쉬었던 장소인 ‘숙곳’의 지명(출12:37, 민33:5)과도 동일하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은 생활의 어려움을 기념하는 동시에 나무가 자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추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³⁶⁾

유월절로 시작된 1년 농사 절기의 마지막 때인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중에 남은 자, 즉 구원 얻을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 노래하였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이날에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날 천사들을 보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우도록 하겠다고 하신다(마13:25-43).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추수할 기회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듯이 마지막 추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고 있다.³⁷⁾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절기들이지만 또한 예언적인

35) 최진호. (2010). 『쉽게 설명한 교회절기』. 서울: CLC, p.118.

36) 박철우. (2009).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p.350.

37) 강성구, 전계서, pp.192-193.

절기이기도 하다. 일곱 가지 절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 연속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절기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도 절기에 맞추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해 심판으로 종결된 구속사의 프로그램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한다. 유월절부터 칠칠절까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부터 오순절 성령강림까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팔절로 대표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향해 가고 있다.³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7절기와 예수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다.

무교절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속죄절은 아사셀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확인이다

초막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대 심판이다.

제 3 절 교회력의 의미와 종류

현대에 지키고 있는 절기는 교회력의 역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교회력의 형성은 2세기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생활의 중심에 두면서 시작되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시간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계속 지탱해 갈 수 있을까 하는 큰 관심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게 되었으며 시간의 규칙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38) 류모세, 전계서, p.33.

39) 한의택, 전계서, p.252.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심이었고 근본적으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서 그 기준을 착상하여 만들어졌다.⁴⁰⁾

교회력의 단순하고도 간단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확실한 재림에 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지상에 재현하는 것이다.⁴¹⁾

교회력에 대해 교회 용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작성한 전통적인 연력(年歷).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및 재림 등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1년 주기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⁴²⁾

정장복에 의하면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일요일(Sunday)을 주님의 날(The Lord's day)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 년을 우리 주님의 구속사에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와 사고들을 재인식시키는 방법이다.⁴³⁾ 첫째로 주님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주님의 명령대로 성만찬을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주일의 첫날(고전16:2, 행20:7)은 주님을 위해 모이는 예배시간으로 발전되었다. 둘째로 유대민족의 고유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 사건과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해마다 새롭게 느끼고 그 깊은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교회력이 시작되었고 발전해왔다.⁴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부활의 사건에만 초점을 둔 교회의 생활을 계속하여 부활의 사건이 예배의 중심이었고 유일한 교회력이었다. 주일은 언제나 부활과 연관을 지었기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축제가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비록 그들은 심한 박해에

40) 정일웅. (1993).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 p. 196.

41) 로버트 E. 웨버. (2006).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이승진역, 서울: CLC, p.36.

42) [네이버 지식백과] 교회력 [敎會曆, church year, liturgical year] (교회용어사전 : 예배 및 예식, 2013. 생명의 말씀사)

43) 정장복. (1989).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Vol.- No.9 p.1.

44) 황병준. (2009). 『절기예배와 기독교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제24집 67-90 . p.70.

시달리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부활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다.⁴⁵⁾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교회력의 근원이며⁴⁶⁾ 주님께서 주중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날 중의 날이 되었다. 부활 직전에는 십자가의 수난을 명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일들은 사순절의 기원이 되었고⁴⁷⁾ 교회의 출발을 가져왔던 오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이어오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일로 받아 들여 쳐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터툴리안(160–220)을 비롯하여 아타나시우스(296–373)와 같은 교회력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날을 주일로 언급하였다.⁴⁸⁾

4세기 초에는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절⁴⁹⁾,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예수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시현을 기념하는 주현절, 순교자들의 기념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 금요일과 수요일의 금식, 일몰로 시작되는 7일간 일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⁵⁰⁾ 4세기 말에는 삼대절기의 분할을 통하여 교회의 발전을 이루하였다. 즉 유월절은 부활절과 성금요일로 분리되었으며 주현절(현현절)은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오순절은 승천일을 출현케 하였다.⁵¹⁾

교회력은 예배 예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세중반에 접어들면서 근본적인 의도는 교회력의 준수에서 떠나게 되고 내용과 의미는 변질되고 있었다. 가장 큰 변질은 성모마리아의 축일을 비롯하여 성자들의 축일들과 기타의 축일들이 교회력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⁵²⁾

45) 정장복. (1994). 『교회력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Vol.10 NO 509–534, p.519.

46) 에드워드 T. 혼. (1971). 『교회력』. 배한국역, 서울: 컨콜디아사, p.26.

47) 정장복, 상계논문, p.520.

48) 상계논문.

49) 초대기독교인들은 유월절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고 명칭도 파스카 절이라고 불렸다.

50) 에드워드 T. 혼, 상계서, pp.30–31.

51) 상계서, p.32.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성인 축일과 축일의 수를 줄였고, 수난절의 금식 의무도 폐지했다. 그러나 교회력은 루터교와 성공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루터교의 교회력은 더 많이 성경의 사건들과 결합시키면서 카톨릭의 것과 차별성을 두었다. 대림절은 카톨릭의 참회적 내용과 다르게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장로교 등 개혁교회에서는 단지 성탄절과 부활절 등 큰 축일만 지켰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력에 대한 인식이 별로 크지 않다.⁵³⁾

교회력의 날짜와 계절들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6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을 순환한다. 이 기간을 "교회력의 전반 축제기"라고 부른다. 중요한 절기들은 교회력의 이 전반부에 모두 들어 있다. 교회력의 후반은 보통 "후반 축제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은 성령의 역사를 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과 신앙생활의 큰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생활과 성장,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교회력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되풀이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사건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새롭게 얻도록 해준다. 즉 예수님의 출생, 세례 받으심(사역의 시작),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⁵⁴⁾

교회력에 따른 여섯 가지 절기와 추수감사절을 알아보았다.

1) 대림절 (Advent)

대림절은 성탄절 전의 4주일을 포함하는 4주기 동안의 절기로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림절(Advent)은 라틴어의 Adventus에서 유래된 말로 ‘출현’ 또는 ‘도래’를 의미한다. Adventus는 헬라어의 ‘파루시아 ($\pi \alpha \rho \sigma \iota \alpha$)’를 번역한 단어인데 흔히 재림(두 번째 오심)의 뜻으로 사용되었

52) 정장복, 전계서, p.527.

53) <http://kcm.kr> 『교회력(敎會歷:Liturgical Year』

54) 정장복,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와 설교』. 장로신학대학원, P.457.

다.⁵⁵⁾

대림절에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준비한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오고 계심을 고백한다. 셋째로, 최후의 승리로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대망한다. ⁵⁶⁾

대림절은 아기예수의 영접을 위한 준비보다 장차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다. 세상 끝날 날에 예고 없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미래적 소망을 다짐하고 준비해야 한다.⁵⁷⁾ 재림이 분명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셨다(골2:15).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라 구세주의 오심을 열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시기에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교회의 적절한 감각이라고 본다.⁵⁸⁾ 또한, 교회의 장식도 대림절은 4주간 4개의 초를 밝힌다. 대림절의 색상은 기다림과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4개의 초는 가장 짙은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성탄의 하얀색에 가까운 옅은 핑크색으로 끝낸다.⁵⁹⁾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을 올바로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현재 믿음과 삶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부름받은 소망을 따라 계속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다.⁶⁰⁾

55) 최진호, 전계서, p.80.

56) 황병준, 전계서, p.72.

57) 정장복, (1994). 『교회력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고찰』. 장신논단, Vol.10, p.528.

58) 정장복, 상계서, pp.59–60.

59) 한국 예배학회. (2018).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성탄절- 구유에 누운 진리의 빛』. 장로회신학교, pp.14–15.

60) 정장복, 상계서, p.61.

2) 크리스마스(Christmas)

그리스도의 축일이라는 뜻으로 12월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 기념하게 된 것은 4세기 말부터이며, 그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다.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 이교도들의 풍습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생일축제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봄(정확하게 4월 19일)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풍습을 없애기 위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공식 생일로 공포했다.⁶¹⁾

우리는 12월 25일에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로마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이방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농신제 날짜에 만든 이유 때문에 이교도적 절기라는 부정적 시각을 떨쳐내지 못해왔다. 하지만 12월 25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성서적 방법은 예수의 어머니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하는 것과 사가랴가 천사의 지시를 받은 시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가능해진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수태고지를 받는다. 성서에 보면 그때 예수의 이종형제인 세례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눅1:24-31)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접근시킬 때 첫째,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한 때는 정확히 초막절이었다. 둘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태일은 초막절로부터 6개월이므로 그날은 역시 유월절이 된다. 셋째, 예수님의 수태일이 유월절이라면 그날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즉 1월15일이므로 이것을 로마력으로 환산하면 대개 춘분점이 되는 3월 20일경이 된다. 그러므로 3월 20일부터 잉태 기간인 280일째가 되는 날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주신다 (사9:6, 램23:5-6).⁶²⁾

로마의 주교 레오(A.D. 440)는 성탄절을 우리의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라

61) 최진호. 전계서, pp.81-82.

62) 상계서, pp.83-85.

고 여겼다. 그리고 성탄절에 대해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성례전”이라고 간주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탄생을 그저 과거의 사건(Past event)으로가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로 바라보는 현재의 실체(Present reality)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 가니라”

첫째, 성탄절에 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본 후에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 그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0-11)라고 천사가 이 말을 전한 후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이를 듣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⁶³⁾

둘째, 성탄절 그 자체를 놀라워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누가복음 2장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제안한다.

셋째, 성탄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 하니라”(눅2:19) 라고 말한다.

넷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 가니라”(눅2:20). 이것은 말과 노래로 예배함을 뜻한다.⁶⁴⁾

성탄절의 분위기는 소란하고 휘황찬란한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뜻을 찾는 장식과 순서가 필요하다. 예전 빛깔은 우리 주님의 부활

63)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2013).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성탄절 메시지』. 심성민역,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pp.275-277.

64) 상계서, p.285.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빛과 승리를 의미하며 거룩함의 상징이다. 독일 사람들은 성탄목을 에덴동산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나무로 연결했고 동시에 선악과를 비유해서 선악과 열매를 상징하는 빨간색 구슬을 달아 죄를 상기 하기도하고 꼭대기에 별을 달아 동방박사들의 별을 나타내고 쿠키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했다.⁶⁵⁾

3) 주현절(Epiphany)

주현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현절은 1월 6일이며 그 해의 부활절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6주 내지 9주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이 일상적인 기간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수세일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 즉 첫 번째 일상적인 시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산상 변화의 주일로 정하고 있다. 히브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이시기는 팔레스타인지역에서는 가장 추운 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소한, 대한의 절기가 있는 달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이다.⁶⁶⁾

성경에서 ‘나타나다’(Epiphany)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 번 사용되고 있다.⁶⁷⁾ 그 중 두 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언급할 때 등장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디도서2:13, 테살로니가후서2:8), 또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디모데후서 1:9-10) 사용된다.

65) 한국 예배학회, 전계서, p.15.

66) 두란노 편집부. 절기강해연구. 제2권, 서울: 두란노 출판사, PP.42-43.

67) 로버트 E. 웨버, 전계서, P.99.

주현절은 원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절기였지만 태양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교도의 축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로 옮겨진 이후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주현절은 역사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0-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현절의 의미이다.

주현절의 상징은 녹색이며 생명과 성장을 표상한다. 주현 후 1주 (예수의 세례 받으심)과 주님의 변형을 축하하는 주일에 흰색을 사용하며 영광과 빛, 승리, 경축을 나타낸다.⁶⁸⁾

4) 사순절(The lent)

사순절(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encten 또는 Len-chthen에서 왔으며 봄이라는 뜻을 갖는다. 사순절은 종려주일(부활주일의 전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경건히 보내고자하는 절기이다.⁶⁹⁾

원래 1세기에는 사순절이 단 40시간이었는데 이것은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40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에는 부활 예배가 있었으며, 3세기 중에 6일간으로, 이 6일간은 성주간(Holy Week)이라고 일컬었는데 4세기 중엽 예루살렘에서였다.⁷⁰⁾ 731년 경 사를마뉴(Charlemagne) 대제 시대에 이 36일간에 나흘이 침가되어 40일간의 절기가 되었다.⁷¹⁾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교회는십자가의 수난을 통해 수곡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는 기도와 금식,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⁷²⁾

68) 박은규, 전계서, P.269.

69) 황병준, 전계서, p.73.

70) 정장복, 전계서, p.263.

71) 상계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심(마21:1-11). 이때 많은 무리들이 그 곁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하리 로다” 하였다.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마21:18-19),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마21:12-13).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하셨다.

화요일- 감람산에서의 설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답하셨다.

수요일- 예수께서 밤마다 베다니에 나가셨으니 이날은 거기서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다가 동의한 날이다.

세족 목요일-최후의 성만찬(마26:31-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한다. 이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 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나 주님은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고 예언한다.

금요일- 십자가의 고난(마27:32-56), 밤새도록 취조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⁷³⁾

토요일-파수꾼이 무덤을 굳게 지킴(마 27:62-66).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라고 건의한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그들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셨다.⁷⁴⁾

72) 원근재. (2003).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절기교육의 의미와 교육적 적용』.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p.50.

73) 최진호, 전계서, p.27.

사순절과 성 주간을 위한 예전 빛깔은 성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죄의 수요일, 즉 속죄일에는 검은 색을 권하는 예배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회개의 날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세속 목요일에 대한 대안적인 빛깔로서 흰색이 제안되었고, 성 주간에 이루어진 희생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주간동안에는 빨간색을 택할 것을 말한다.⁷⁵⁾

5) 부활절(Easter)

부활절(Easter)은 본래 바빌로니아의 하늘 여신 이스터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교리나 그 행동강령과 무관하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교적인 관습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⁷⁶⁾

부활절은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말인 파스카(Pascha)와 관련 되어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월절, 즉 죽음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었다는 뜻을 부여했다. Easter가 일반적인 명칭이 되기 전에는 이날이 주님의 부활일 및 부활의 유월절이라고 알려져 있었다.⁷⁷⁾

이 절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토대로 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영생을 확증하며 억압과 죄책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갖게 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이겨 나가게 하는 것이다.⁷⁸⁾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쁨의 메시지이다. 부활절은 자신

74) 최진호, 전계서, p.28.

75) 정장복, 전계서, pp.266-267.

76) 최진호, 상계서, pp.35-37.

77) 정장복, 상계서, p.267.

78) 박은규, 전계서, p.277.

의 허물이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서 장사 지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존재’이다. 그는 이제 높임을 받으시는 몸이며 어떤 죽음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특권이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 의식을 심어주는 선포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소망의 메시지이다. 부활은 현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성도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메시지이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승리자로서 오늘날의 우리도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⁷⁹⁾그리고 부활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아들을 대속물로 받으셨음을 나타내셨다.⁸⁰⁾

부활절의 분위기는 의식 빛깔에 반영되고 표현된다. 그것은 흰색인데 흰색이 축하, 축제, 기쁨, 그리고 승리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력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특별히 돋보이기 위해 황금색이 부활절의 대안적인 색깔로도 사용 할 수 있다.⁸¹⁾

6) 성령강림주일(Whitsunday)

예수께서 부활하신지 50일째 되는 날, 즉 부활 후 7번째 되는 주일에 성령께서 오셨다(행2:1-4).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강림 주일이다. 이때 부활 후 7번째 주일이라 할 때에는 부활하신 주일의 다음 주일을 첫 번째 주일로 계산해서 7번째 주일은 정확하게 49일 후가 된

79) 정장복, 전계서, p.269.

80)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전계서, pp.210-211.

81) 정장복, 상계서, p.270.

다. 그리고 부활하신지 50일째 되는 날이란 부활하신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하여 50번째 되는 알이므로 49일 후가 되는 것이다.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기도 하다. 오순절이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을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한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⁸²⁾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어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한다(레23:9-1).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행1:4),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특별히 이 날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된다.

서방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절 철야제를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성대하게 행했는데, 특히 성령강림절 철야제는 세례와 결합되어 행해진다. 이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날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기도하는 날이어야 한다.⁸³⁾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후 모든 교인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의 탄생과 성도의 신앙을 축하한다. 또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생활 속에서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⁸⁴⁾

이때의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불의 색깔인데,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했기 때문이며, 그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뜻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들에게 임하셨으며 그 불은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열심, 헌신 및 경건을 뜻한다. 또한 빨간색은 피의 색이어서 교회의 씨가 된 순교자의 피를 뜻한다. 오순절 후 주일의 빛깔은 녹색, 즉 성장의 색이다. 이 절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자라야 함을 의미한다.⁸⁵⁾

교회력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성령으로 오심, 재림에

82) 최진호, 전계서, pp.40-41.

83) 권선철. (1991). 『그리스도교 대사전』. 제1권“교회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9.

84) 원근재. 전계논문, p.60.

85) 상계논문.

관한 절기 외에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는 교단마다 다르나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7) 추수 감사절(Thanksgiving Day)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헐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암스텔담과 랑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주리며 살았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1558)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입국을 허락하지 않자 신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했다. 그들은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메사추세츠주 케이프카드만에 도착하였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밀의 경작 법을 배워 가을 추수를 통해 매년 추수 감사절로 보내는 유래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한국교회에서도 감사일을 정하기로 하고 우선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장로교 단독으로 지키도록 하였다. 그 후 1914년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후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 감사절로 전해 오늘에 이른다.

제 3 장 절기 예배무용

제 1 절 예배무용의 이해

1) 예배무용의 의미

예배무용은 영어로 워십댄스(worship dance)와 리터지컬 댄스(liturgical dance)로 나누어진다.

첫째, 예배무용(worship dance)의 사전적 의미는 워십(worship)이라는 ‘예배하다’, ‘숭배하다’와 댄스(dance)라는 ‘춤추다’ 단어의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예배(worship)은 앵글로 색슨어인 “Weorthscipe”에서 유래했으며,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합성어로 그 뜻은 가치가 있는 신분으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5장12절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하도다”라고 했다. 워십댄스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예배무용(liturgical dance)의 사전적 의미는 리터지컬(liturgical)이라는 ‘예배의식’과 댄스(dance)라는 ‘춤추다’ 단어의 합성어이다. 명사형 리터지(liturgy)는 이투르기아(ι το ργια)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의식주의적 예배를 가진 예배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설교가 아닌 예배순서의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예배이다. 카톨릭 교회와 희랍 정교회의 예배가 여기에 속한다. 개신교에서는 이 용어가 의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리터지라는 용어가 의식적인 색체가 없어졌다 는 것을 이해한 후에는 예배를 리터지라고 하였으며 넓은 의미로 예배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⁸⁶⁾

86) 김수경. (2000).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서울: 성은출판사, pp.17-18.

두 가지 예배무용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십댄스(worship dance)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무용이고 둘째, 리터지컬 댄스(liturgical dance)는 예배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무용이다. 따라서 예배의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 무용 안에 경배무용, 즉 워십댄스가 포함된다.⁸⁷⁾ 위에서 살펴본 예배무용은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그 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묵상하게 하는 무용수의 움직임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다. 또한 외적인 무용의 행위로만 나타나지는 것 뿐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과 복종으로 경배하는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며 기도여야 한다.

예배무용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예술의 목적으로만 성서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복음전파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⁸⁸⁾ 예배무용은 예배의 의식 속에서 행해지므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면 “은혜 계약에 기초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약,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는 교제를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 함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 계시로 현존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현존, 임재와 축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⁹⁰⁾

87) 안은경. 『품위있고 질서있게 드리는 예배무용』 .인천: 주빛 출판사, 2016, p.20.

88) 이소영. 『기독교 예배무용 움직임의 체험인식과 창작활용에 관한연구』 . 세종대 박사학위, p.13.

89) 김소영. (1993). 『현대 예배학』 .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p.51.

90) 김수경, 전계서, pp.19-20.

[표 3-1]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와 의미⁹¹⁾

구약에 나타난 예배 용어	의 미
다라쉬(darash)	찾는다, 구한다 (스4:2)
아바드 (abadh)	일한다, 노동한다, 봉사한다, 섬긴다(출3:12, 삼하15:8)
샤카흐 (shachah)	경배하는 것,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리다, 굴복하다(출4:31, 신26:10, 삼상1:3)
자바흐(Zabah)	제물로 바치다, 도살하다(시40:6, 삼상6:5, 출10:25)

[표 3-2]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와 의미

신약에 나타난 예배 용어	의 미
레이투르기아(λ ε ι τ ο υ ρ γ ι α)	봉사, 섬김(행13:2)
세보마이(σ ε β ο μ α ι)	존경하다, 경외하다
라이트레이아(λ α τ ρ ε ι α)	섬긴다(요16:2, 롬9:4, 롬12:1)
트레스케이아(θ ρ η σ κ ε ι α)	종교적인 예배, 경건 (고2:18, 약1:26-27)
프로스쿠네오(π ρ ο σ κ υ ν ε ω)	손에 키스하다, 땅에 엎드려 입 맞추다,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마18:26, 요4:24)

성경에 나오는 예배용어의 의미를 볼 때 경배하는 것, 엎드림,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로 예배하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예배무용의 용어와 형태

성경에 직접적으로 무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춤의 의미가 함축되어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무용과 움직임의 용어를 히브리어를 통해 명확하게 의미가 사용된 20개의 용어를 찾아 볼 수가 있었다.⁹²⁾

91) 김수경, 전계서, pp.7-13.

92) 박영애. (2010).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제18권, P.26.

[표 3-3] 성경에 나타난 무용의 히브리 용어와 의미

아라즈(Alaz)	도약하다, 건너뛰다 대개 축하하고, 기뻐하며 추는 춤에 사용한다.
바락(Barak)	무릎을 꽂다, 굽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사바브(Cabab)	행진하다, 빙빙 돌다, 걷다, 맴돌다 주위를 애워 싸고, 반복적으로 돌면서 하는 움직임에 사용한다.
하가그(Chagag)	원대형으로 돌다. 신성한 행렬, 종교적 행진을 할 때 사용, 이스라엘 절기 때 많이 움직이는 유형이다.
훌(Chuwl)	라운드댄스로 몸을 휘감듯 움직이거나, 나선형으로 빙빙 돌며 원을 그리는 형태. 몸을 뒤틀 거리거나 몸부림치듯이 괴로워하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다락(Dalak)	뛰어넘다, 도약하다, 뛰어 오르다 주로 활발한 춤에 사용 된다
힐(Giyl) 훌(guwl)	빙빙 돌거나 기뻐 뛰며 추는 춤이다. 축하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의미이며, 뜻밖의 감격과 감동을 나타내고 흥분된 기쁨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다
하락(Halak)	행진, 빙글 빙글 돌다, 걷다
하라카 (Haliykah)	행렬, 행진, 걷다
카라르(kara)	춤추다, 경충경충 뛰다, 빙빙 돌다
마흘(Machowl)	춤, 춤추다 다양한 춤의 종류 중에서도 원무를 나타낸다.
메호라 (Mechowlah)	춤, 춤추다 무용수나, 무용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바(Naba)	감홍과 영감에 의해 예언하다 이러한 상황에 춤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예언의 의미와 함께 춤을 표현한다.
나다(Nathar)	건너뛰다, 도약하다
파사흐(Pacach)	호핑, 스키핑, 리핑 등 다양한 움직임이다. 느릿느릿 걷고, 머뭇거리듯 유령하지 못한 움직임을 묘사한다.
파마흐(Paamah)	발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규칙적인 발의 움직임, 발로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함께 사용되어 여홍적인 춤의 유형에 사용한다.
Pazaz(파자즈)	세련됨, 정교함을 의미, 펄쩍뛰어 오르기, 도약하기
Raqad(라카드)	발에 구르다, 깡충 거리다, 도약하다
Shachah(샤하)	엎드리다, 허리를 굽히다,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Yalak(야락)	주위를 돌며, 소용돌이치는 듯 하는 움직임, 당당하게 걸어 나가거나, 정연하게 움직이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제 2 절 성경에 나타난 절기예배무용

1) 절기와 축제의 움직임 특성

‘하가그(הַגָּה)’는 유대인의 명절 풍습과 관련 있는 텍스트로 구약성경에서 모두 16번 사용된다. 그중 13번은 단순히 “축제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출애굽기5:1, 12:14, 23:14, 레위기23:39,41 민수기 29:12, 신명기16:15, 시편42:4, 107:27, 나훔1:5, 스가랴 14:16,18,19).

움직임을 함축하는 용법으로 시편 107편 27절에 나와 있는 구절의 의미를 “그들은 솔 쥐 한자처럼 원형으로 빙빙 돌며 비틀거리다”로 가정해 볼 수 있으며, 하가그가 축제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사무엘상 30장 16절과 시편 42 편 5절의 경우에도 “원을 그리며 춤추다”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출애굽기나 나훔 이외의 본문들에서 하가그는 공통적으로 초막절을 지시하고 있다.⁹³⁾ 그 외에 절기와 축제의 의미를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Halak”, “Chagag”, “Chuwl”, “Mechowlah”, “Machowl”과 같은 춤은 일반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의식 속에서 행해질 경우, 걸어서 행진을 하거나 대개 둉글게 원으로 대형을 형성하여 나선형 또는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to whirl) 움직임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⁹⁴⁾

시편118편 27-28절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

93) 김은혜, 전계논문, p.49.

94) 박영애, 전계논문, p.34.

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뿐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 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라는 공동번역에서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나뭇가지 손에 들고 출줄이 제단 돌며 춤을 추어라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오니 당신께 감사기도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표 3-4] 절기와 축제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와 성경구절

“Halak”	이사야 30장 29절: 너희가 거룩한 <u>절기를 지키는</u>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 23장 41절: 너희는 매년 이례 동안 여호와께 이 <u>절기를 지킬지니</u>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지니라
“Chagag”	출애굽기 5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u>절기를 지킬 것이라</u> 하셨나이다 시편 42편 4절 : 내가 <u>성일을 지키는</u>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출애굽기 23장 14-16절: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u>절기를 지킬지니라</u>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킬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 아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이니라
“Chuwel”	사사기 21장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u>춤추는</u>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 하였더라
“Mechowlah”	사사기 21장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u>춤을 추려</u>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Machowl”	시편 149편 3절- <u>춤추며</u>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 할지어다

구약시대에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 일곱 번째 달인 티쉬리 달의 열다섯 번째 날에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거행되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더 연장되기도 했다. 새벽, 아침, 밤에 공통의식이 거행되었는데 밤에 거행하는 의식에서 촛불 밑에서 피리에 맞추어서 횃불 춤을 추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편120-134)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가는 열다섯 계단의 한 계단에서 마다 노래 하나씩을 불렀다. 이사야 30장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언급된 밤의 거룩한 절기는 바로 이 의식일 것이다.⁹⁵⁾

초막절에 관해 시편118:15, 시118:19, 시118:24, 시118:26~27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즉위하던 날을 묘사한 것으로 축제의 관행처럼 모든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출수 있도록 성전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은 “여호와의 축제인 특정한 날”을 말하고 있다. 이 축제의 기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정도를 알면 ‘하그’라는 용어가 본래 축제의 본질(지성소 주위에서 추는 거룩한 무용)을 의미 했다.⁹⁶⁾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비 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동안 즐거워 할 것이라.”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해 랍비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수확하기 시작한 시트론(Citron)나무이고 무성한 가지는 은매화(Myrtle) 나뭇가지라 생각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시트론나무(히브리어로 에트로그 Ethrog)와 베드나무와 은매화 나무(하다심 Hadasim), 종려나무(루라브 Lulav)등 네 종류의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사방으로 흔들면서 단 주위를 돋니다. 왜 사방으로 흔들까하는 의문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다.⁹⁷⁾

95) 김은혜, 전개논문, p. 49.

96) 이명경. (2000). 『몸으로 드리는 대안예배 유형연구』 . 이화여대 석사, p.22.

예수님 당시의 랍비문헌은 관제의 축제(초막절에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 단에 봇는 관제)에 관해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 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 경건하고 근엄하던 현인들이 아이들처럼 뛰어 노는 모습을 여인들은 발코니 위에서 독특한 쾌감을 느끼며 지켜보았을 것이다. 밤새도록 이렇게 뛰어놀던 축제는 새벽닭이 울면서 마무리에 들어간다.⁹⁸⁾

사사기의 저자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아내를 얻어 멸족의 위기를 넘겼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내를 납치해서 얻었는데 아마도 그녀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산지의 실로⁹⁹⁾(현재 세일룸<Seilum>)에서 행해졌다. 사건은 명칭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연중 절기에 일어났다(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지파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lahul bammeholot)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삿 21:20-21).¹⁰⁰⁾ 여기에서 춤이 인정받는 풍습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포도원은 축제가 매년 열리는 장소였으며 그 때마다 의식무용이 거행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언급된 춤추는 곳이라는 뜻의 “아벨므홀라(Abelmehola)”의 종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⁰¹⁾

유대인들은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칠칠절의 주된 춤인 행렬무와 원무로써 행렬 속에서 남녀가 노래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한다. 이 절기는 사람들이 춤추는 것과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절기로 항상 제단에 이르는 행렬과 제단 주위를 도는 원무가 있었다. 이 시기에 오순절의 예루살렘을 춤추며 악기를 연주한다. 어린 소녀들의 머리는 꽃으로

97) 류모세, 전계서, PP.236-237.

98) 류모세, 전계서, p.181.

99)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실로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순례지이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실로에서 매년 세 차례씩 만날 때에 열리는 절기에 우리의 아내나 딸들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 . p.12

100) 류모세, 상계서, p.396

101) 박영애, 전계서, p.123.

화관을 썼고 남자들은 피리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추어 봉헌하고 행진한다.¹⁰²⁾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15마일 내의 사는 모든 성인 유대 남성들은 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였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큰 제단을 둘러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둉그렇게 서서 그곳을 빙빙 돌며 행진을 했다. 동시에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취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득 채워왔다. 이때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맞았다(사12:3). 제사장은 운반된 물 항아리를 들고 앞으로 나가 제단 위에 쏟아 붓고 나서 은 나팔을 세 번 분다. 이 일이 끝나면 시편113-118편을 불렀다. 그리고 다시 예배자들은 “이제 구원 하소서”라고 외쳤고, 종려나무 가지로 제단을 향해 흔들어 댔다. ‘구원’을 위한 축도와 함께 이 절기는 마무리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절기를 일컬어 ‘큰 구원’의 날이자, 마지막 사죄의 날, 기쁨의 날로 여긴 유대인들은 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며 춤을 추기도 한다.¹⁰³⁾

이 외에 이 절기에 대해 요한복음 12장 12-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감람산으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당시의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며, 초막절 행사와 다윗의 오실 메시아사상을 결부시킨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공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까지 들어와 번제단 주위를 돌며 초막절에 네 가지 식물인 ‘아르바 미님’¹⁰⁴⁾을 흔들었다.¹⁰⁵⁾

102) 한재선. (2009).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무용의 유형과 현황연구』. 용인대 석사논문, p.61.

103) 이성훈, 전계서, pp.135-136.

104) 초막절에 흔드는 아르바 미님은 종려나무, 버드나무, 은매화 나무, 레몬과 비슷한 과일인 ‘에크 로그’이다.

105) 류모세, 전계서, p.224.

제 3 절 역사적으로 행해진 절기 예배무용

성서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절기 축제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농업 축제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무교절 축제는 곡식에 낫을 처음 댈 때 열리는 봄의 축제로 수확한 첫 열매를 바쳤다(신 16:8-9). 유월절 축제는 이 축제와 함께 지켰는데 역시 가축의 갓 태어난 새끼를 바치는 봄의 축제였다(출34:25). 초막절 축제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면서 열리므로 수확의 축제라고도 했다(출23:16).¹⁰⁶⁾

유월절 축제는 춘분이 되기 전, 보름날 밤에 축제를 목자의 텐트 입구에 번제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빨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며 성스러운 무용을 하고 함께 번제의 식사를 나누었다. 나중에 그 축제가 무교절 축제의 형태를 띠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관되어 있다. 유월절 축제를 뜻하는 “Pesach”라는 용어는 절뚝거리는 스텝의 일종을 의미하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온전치 못한 스텝을 흉내 낸 목자들의 춤은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 태어난” 히브리 노예들의 춤이 된 것이다. 이 축제들은 각각 “hag ha-Mazzth”, “hag ha-Kazir”, “hag ha-Asiph” 라 불렸는데 하그 (hag)라는 용어가 둥글게 돌아가면서 추는 성스러운 무용을 뜻하기 때문에 각 축제의 이름에 그러한 용어가 수반된 것은 그 축제에 추어진 의식 무용이 성소를 둘러싸고 제단 주위에 추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⁷⁾

성서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은 성소 또는 희생 제물 주위를 둘러싸고 행해진 의식이 고대 아랍인의 문화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의 춤을 의미하는 “hag” 카바(Kabba: 아랍 메카의 대사원에 있으며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역주)뿐 아니라 모든 성소의 성물 주위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의식의 춤이 추어지던 성스러운 바위는 “Davar”, 즉 둘러싸는 물건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¹⁰⁸⁾

교부시대(A.D. 100-500)는 예수를 둘러 선 제자들의 원무를 묘사한 120

106) 박영애, 전계서, p.121.

107) 상계서, p.122.

108) 상계서, pp.120-121.

년경에 기록된 「요한의 행전(Act of John)」 위경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리가 ‘신비적 원’을 만들고 천천히 원을 따라 돌면서 가운데 계신 예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수의 찬송”은 전통적인 기독교 문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징적 운동이 2세기 혹은 3세기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¹⁰⁹⁾ 수도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키 가이사랴의 주교 바실리우스(Basilius, 330–379)는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은 곧 춤”이라며 교회무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부활절 춤에서 여인들이 추는 관능적인 움직임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 사람의 주목만 끄는 잘못된 춤을 신랄하게 비난한 일이 있었다.¹¹⁰⁾

초기 중세시대(A.D. 500–1100)에 예배의식은 항상 인간이 신과 친교 하 고자 시도했던 방법들을 반영했고, 춤을 기쁨과 구원 그리고 경배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인식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순교자들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영적 결속에 대한 기쁨을 상징적 동작이 아니라 풍부한 삶과 영적인 기쁨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춤들을 숙달된 무용수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격으로 추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무용을 기도와 찬미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익숙했던 것이다.¹¹¹⁾

554년경 Childebert(프랑스)의 왕은 그의 영토에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외 축제에서 행해지던 종교무용을 금지했고, 690년경 성 월리보드(St. Willibord)를 기념하며 룩셈부르크에서 성령강림절에 행렬을 했고 성직자, 찬양대, 교인들이 교회에서 춤추며 행진하여 제단 둘레를 돌며 춤추는 행 사였다.¹¹²⁾ 900년경 Constantinople의 총대주교, Theophylactus: 크리스마스 나 공현축일 때 성찬대 앞이나 교회에서 춤을 소개했고 970년경 “Quem Queritis”에 가장 일찍 기록된 부활절 의식을 위한 짧은 연극(playlet)으로서 마임이 지시돼 있다.

후기 중세시대(A.D. 1100–1400)에 12세기 파리 대학 총장 벨레드(John

109) 최지연.(2017). 『교회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박사과정. 장신대, p.40.

110) 최신정.(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 p.120.

111) 김현정.(2003). 『기독교예배무용의 영적기능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112) 최신정, 전계서, pp.125–126.

Beleth)는 네 가지 종류의 집단 가무인 삼보무(Tripudia)를 언급했다. 이 춤은 교회 축제에 관습적으로 추어진 것이었다. 이를테면 할례의 축절이나 주현절(Epiphany: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예수 앞에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1월6일의 축일에 하는 차부제들(subdeacons)의 축제무용이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화 된 이교 춤들의 가장 고대의 것은 성요한과 브라던스의 축일 때 노래와 기도를 수반하는 고대의 횃불 춤으로 주로 5월1일이나 오순절에 상연되었다.¹¹³⁾

캐럴은 중세 말기에 성행했는데 그 어원은 이탈리아의 까롤라(carola)로서 원무의 의미가 담겨 있다. 노래와 원무가 결합한 형태의 캐럴은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기뻐하는 축하행사에서 행해졌는데 1223년 성 프란시스(St. Francesco)가 예수님상 주위에서 성탄절 캐럴 춤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¹¹⁴⁾

르네상스 시대(1400–1700)는 문예 부흥을 맞이하면서 엄격하고 권위적인 교회의 세력아래 있던 백성들은 점차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유를 얻기 시작하여 춤과 노래에 창조력과 새로운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478년경 Hildesheim(서독)의 교회는 부활절 미사 때 원무가 공연되었다. 1500년경 포루투칼의 왕과 신하들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교회 안에서 미사의 “영광송”을 무용으로 했고 1582년경 (프랑스)의 Ste. Marie Magdaleine에 있는 교회 의식에 대한 책자에서 부활절 무용, “bergeretta”를 기술했는데 그것은 프랑스 Besacon 주교관구의 교회에서 공연됐으며 그 무용은 설교를 마칠 때 성가대 소녀들이나 수도 참사 회원들에 의해 본당이나 수도원에서 뱀 형태의 방식으로 추어졌다. 1585년과 1601년에 그 무용의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내린다는 종교회의 주교관구 포고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 관구의 교회에서 1739년까지 바세콩의 교회에서 지속되었다.

영창과 기도의 반주로 추는 고대의 반주로 추는 고대의 횃불무용, “브랜돈스”는 5월의 첫날, 그리고 오순절에 추어졌다. 그러나 샬롱 쉬르손(Chalon-sur-Saone)의 대성당 참사회 의원들은 오순절에 더욱 경건한 의식

113) 딕 아담스, 다이안 아파스톨로스(2006). 『종교와 무용』. 김명숙역. 서울: 당그래 출판사, p.42.

114) 최신정, 전계서, p.127.

을 거행했는데, 그들은 “성령이여 오소서(Veni Sancte Spiritus)”라는 노래로 시작해 영창 반주에 맞춰 관습을 오순절 저녁에 지켰다. 이러한 관습은 1624년에 폐지되었다. 소년들이나 수도참사 회원들에 의해 본당이나 수도원에서 뱀 형태의 방식으로 추어졌다. 1585년과 1601년에 그 무용의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내린다는 종교회의 주교관구 포고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 관구의 교회에서 1739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시기에 크리스마스 캐롤인 “사랑스러운 요셉, 나의요셉”은 ‘라우디부스의 반향(Resonnet in Laudibus)’으로 적혀 있었고 춤 또한 이 캐롤의 일부였다. 또 다른 무용 캐롤인 “어린 예수의 춤” 근처의 로끄브뤼(Roquebrussance)서 상연되었다.

후기 르네상스(A.D.1700–1900년)는 창조적 표현의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교회나 어떤 곳에서도 예배 의식으로서의 종교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종교무용은 아예 사라지거나 미사 자체에 규정되어있는 동작들에 귀속되어 버렸다. 설령 남아 있더라도 고립된 지역에서나 존속되었고 또는 민요적 표현으로 바뀐 형태로 남아 있기도 했다.¹¹⁵⁾ 1749년경 (프랑스) Basque의 주교는 크리스마스에 남성 무용수들과 탬버린 연주가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가하였다.

종교개혁¹¹⁶⁾ 이후 마틴 루터와 몇몇 지도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거룩한 춤을 이해하여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는 춤을 옹호하였다. 기독교무용의 자취는 20세기까지 유지되었다. 행렬무용은 룩셈부르크의 에크터나흐(Echternach)에서 14세기부터 매년 여는 윌리브로드의 축일행사, 바르셀로나에서 촛불을 들고 하는 제단무용, 결혼행진은 유럽의 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디오피아의 곱틱 교회에는 초기 무용이 보존되어 있다.¹¹⁷⁾ 1943년 미국의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Denis)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크리스마스 절기 무용을 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초막에서 생활하는 걸 즐기곤 한다. 그들은 초막절기 내내 종려나무 가지로 덮은 지붕이 열려 하늘이 보이는 초막 안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춘다. 이 기간

115) 딕 아담스, 다이아 아파톨로스, 전계서, p.49.

116)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주도아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1517년 종교개혁을 했다.

117) 최지연, 전계논문, p.44.

동안에는 서로 어울려서 파티를 열고 한 주간동안 명절로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백성에게 이 절기는 기쁨의 명절이다.

한국에서는 1973년 부활절 예배를 위해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무용극이 현대 무용가 육완순에 의해 올려졌다.¹¹⁸⁾ 한국 무용가 문일지는 부활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제로, 성탄절에는 “메시아” 시리즈를 발표했다.¹¹⁹⁾ 2002년 여호수아 워십댄싱 신학원에서 기독교TV와 함께 크리스마스 점등식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시작으로 일산 라페스타 거리, 종각역, 일본, 파라과이에서 공연을 하였고, 부활절 기간에 프뉴마 발레단은 “신 비아돌로라사”를 대학로 공연장에서 올렸다. 그리고 현재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미국, 필리핀, 하와이, 유럽, 이스라엘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절기 때 행해진 동영상들이 올려져있고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중심으로 공연된 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다.



118) 웹진 아르코, <http://arko.or.kr/home2005/bodo/sub/forest.jsp?idx=1858>.

119) 연합뉴스, 1990년도 6월 21일 11시 53분에 <http://v.media.daum.net/v/1990062111530084>.

제 4 장 절기 예배무용가들의 창작 접근법

제 1 절 각 무용단 리더의 인터뷰 내용

본 연구에 인터뷰한 리더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팀 리더	나이	기독교무용으로서의 기간	리더로서의 기간	무용단 규모
A	만 66세	30년	20년	40명
B	만 60세	22년	16년	30명
C	만 46세	24년	14년	11명
D	만 49세	25년	19년	60명
E	만 58세	30년	16년	12명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4-2 인터뷰 내용 구성]

1. 절기 예배무용 대한 의미와 효과	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은혜)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3) 본인이 안무한 절기예배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p>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2. 창작 방법 및 움직임 유형	<p>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2) 안무는 대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p> <p>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p> <p>4) 안무하신 절기 예배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p>
3. 음악, 의상, 소품사용	<p>1)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음악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p> <p>2) 절기 예배무용에 사용했던 음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오</p> <p>3)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p> <p>4)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을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p>
4. 단원 훈련방법	<p>1) 일반적인 워십댄스와 달리 절기 예배무용을 지도. 훈련 할 때 차별화된 방법이 있습니까?</p>
5. 기타	<p>1) 지금까지 안무자께서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외에 다른 절기를 위한 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p> <p>2)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p>

1) A팀 리더

(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적 기적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수시로, 무시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 묶여있던 우리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어야 하며, 치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적, 체험적 절기무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과거와 지금의 문화적인 면은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기에 모방이나 단순한 행위 또는 형식적인 절기 행사로서가 아닌 성도가 받은 체휼의 신앙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절기 예배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안무는 대개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 또는 신앙적 교제 및 예배를 통해서, 교회나 직장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수시로 받는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며 이웃을 위한 또는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신앙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워십 댄스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절기 시에도 각자에게 다양한 직,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안무를 하게 된다. 특정한 성경말씀을 읽다가 또는 특정한 찬송가를 부르다가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 사건들을 통해서 안무의 동기 및 목적 내지는 전 과정에 대한 형상 및 과정을 받게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안무에 있어서는 각자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질과 양의 구성을 해야 하는지 본질적 물음을 되새김질하며 책임질 수 있는 안무여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기뻐

하시는 안무여야 한다고 본다.

(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허망하거나 망령된 것을 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더 나아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원하신다. 육의 것은 육의 열매를 성령의 것은 성령의 열매는 맺는다고 하였듯이, 특별히 무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는 대표적인 종합적 예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안무 전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 등 예배의 본질성을 망각하고 행사용으로나 일회성으로 안무할 때 하나님 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부터 이타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기다릴 때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인들의 예정한 때를 지나도록 모세가 하산을 하지 않으니 함께 있었던 아론에게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이때 아론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허락하여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금과 을 다 모아 파라오 신상을 만들고 그 주변을 돌며 술 마시고 춤추며 다시 애굽 시절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미혹함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 소견에 옳은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본 작품 구성과 이 세대에서 행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작품의 구성에는 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을 믿음과 말씀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는 안무를 해야 될 것이다.

(4) 안무하신 절기 예배 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순절-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해, 우리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표현했다.
- 부활절 -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부활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재 하신다. 과거 역사의 기념비적인 부활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번창한 세계의 인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그 광휘함을 드러내시는 그 기쁨, 감사를 표현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안무의 특성이 있다.
- 추수 감사절- 일상적으로 온 세계가 가을이 되면 추수 감사 절기를 맞는다. 인간이 노력해도 다 얻을 수 없는 기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온 지구촌이 지구온난화 및 병균, 바이러스 또는 자연재해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 이르기까지 늘 빛과 공기, 물과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은 우리에게 일용할 맞춤형 양식을 항상 허락하심을 표현한다. 나아가 성도가 길을 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그런 추수 꾼에 대한 묵상과 우리의 본분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표현한다.
- 성탄절 -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자 마구간에 구유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죄악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늘의 공중권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온 세계에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서부터 기독교 국가에 이르도록 매해 12월 25일이면 다같이 기뻐하되 일 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선한마음을 통하여 겸허히 회개하고 반성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빛처럼 모든 인류가 가장 깨끗한 빛으로 아름답고 선한 사람

들로 변화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절기 무용이 많은 나라이다. 예를 들자면 4월의 파종기, 9-10월의 추수기,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기우제, 단오나 정월 대보름 등의 절기와 그 시기에 하는 가무들이 있고, 각각의 특성을 춤에 담고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기 무용 역시 각각의 특성을 춤에 담아야 하는데 간혹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체험적인 한 예로써, 영어 찬양을 틀어 놓고 해석도 없이 춤을 추어 가사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상의 춤의 기본을 그대로 추면서 음악만 바꾸어서 절기 무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신앙고백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교회 무용에서 자주 사용하는 힙합의 특징은 꺾기라는 움직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꺾기의 특성을 어떤 음악에 어떤 주제로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워십댄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약의 브사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느 날 부르셨다. 그런데 브사렐의 경우는 영성도 훌륭했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다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미술적 감각을 공부했다고 한다. 이런 절기적 예배무용도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실기에 대한 모색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 드리고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즉 목회자와 같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음악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각 절기무용의 음악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

라서 다를 수 있다. 또한, 절기 무용은 국가적, 지방적, 다양한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악기의 종류, 음악의 템포, 시대적 성향이나 개인적 조건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의 기준은 수시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할 경우와 국외에서 할 경우와 집단의 규모의 대소, 소외 당한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등 직업군에 따라서도 음악은 다양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무하는 안무자가 확고한 신앙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본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음악의 테크닉컬한 것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 타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분별력 없이 무조건 선호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7) 절기 예배무용에 사용했던 음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사순절- “거기 네 있었는가” , “비아돌로로사” , “그(시인과 촌장)”가 있다.
- 부활절- “alleluia(소망교회 청년팀 음반)” , “alleluia 우리예수(예수 전도단 거룩한 성전)”,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예수 전도 단 10집)” 이 있다.
- 추수감사절 – “감사의 정원” , “시편 100” 편이 있다.
- 성탄절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alleluia(메시아)” , Oh, Holy Night(소향)가 있다.

(8)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 사순절- 예수님의 보혈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 수건을 사용했다.
- 부활절- 예수님의 성결함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 수건을 사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하얀 부채를 사용했다.
-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수확한 곡식단을 사용했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기쁨을 소고로 사용했다.

·성탄절-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며 청사초롱을 사용 했다.

(9)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은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맵시 위주나 유행에 따른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작품에 맞는 색깔과 그 사람에게 맞는 디자인 및 색깔을 선택하여 창작한다. 특징은 치마폭을 여러 폭을 쓰지 않는다. 예배무용을 드릴 때 관객의 시선이 의상이나 무용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별히 의상을 맡는 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쫓아 만들며, 아름다움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 경우가 있었다.

부활절은 할렐루야라는 부채춤 곡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하얀색 의상으로 표현했으며, 추수감사절에는 농촌의 느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추수의 기쁨을 표현했다. 성탄절은 천사들을 표현할 때 거의 하얀색 배열을 하고 천상의 빛을 표현하고자 할 때 반짝이는 천을 사용하여 주제에 맞게 의상을 선택한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색깔인 무지개 색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편안하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절기에 따른 의상의 디자인은 과거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틀을 찾기보다 오늘날의 이해를 돋고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10) 일반적인 워십댄스와 달리 절기 예배무용을 지도, 훈련할 때 차별화 된 방법이 있습니까?

절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 시대와의 관계 또한 워십 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적 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며 답변을 듣기도 한다. 또한, 한 동작 동작에 대한 의미를 신앙적으로 설명을 한다. 때로는 워십댄스 공연영상을 수업을 통해서 각자가 느낀 바를 분석하고 차기의 온전한 워십댄스를 위해 개인 연습을 하도록 한다. 나아가 창작, 안무법과 영적인 교재연구, 단원들 간의 사랑의 교제, 말씀 묵상이 있고 절기 예배무용 전 기초 동작과 기본동작에 대한 점검 및 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 예배무용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사순절** –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요시 한다.
- 부활절** –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경지까지 완전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의 회개 및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워십댄스 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를 확신하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추수 감사절** – 봄에서 가을까지의 추수의 단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도 감사하고 우리를 연단하여 빚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 성탄절** –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용서치 못한 것, 회개치 못한 것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 무거운 짐을 아직도 스스로 지고 있는 것 등을 온전히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은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순절에 존귀하신 주라는 작품을 할 때였는데 대체로 이 작품을 할 때는 많은 눈물을 주시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눈물이 아닌 웃음을 주셔서 웃음이 가득한 주님을 찬양케 하셨던 기억이 있다. 또한,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고 마음의 큰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워십댄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행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성령 충만함에 워십을하게 되었다. 그 때 나의 나 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로 세상 끝날 까지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13) 본인이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순절에 “마리아 통곡”, “그”라는 작품인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과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품 속에 녹아지기 때문이다.

(1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에게는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목사님도 설교사역 등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힘이 되고 유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기쁨과 회개가 있으며 무용뿐 아니라 단에 서기까지 교회 주위와 단을 정리하고 섬기는 순종을 통해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15) 지금까지 안무자께서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외에 다른 절기를 위한 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안무하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가 있는데 주로 회개, 기름 부으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소외 계층을 위한 안무를 하게 하셨던 것 같다. 초청하시는 여러 교회나 단체들로부터 요청받는 레파토리가 주로 발전을 하였는데, 지금쯤은 전반적으로 각 절기별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영성과 실력 등에 대한 재점검 및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늘려서 종전보다 더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절기 무용을 안무할 것이다.

(1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해 오신 분으로서 절기예배무용에 관심있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절기 무용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

심과 백성을 사랑하시며 영원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체의 안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2) B팀 리더

(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으로, 구약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며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정된 절기들이 오늘날 기독교 절기의 시초가 되었다. 구약성경의 다양한 절기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어지면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절기의 의미와 접목하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유대교의 역사와 절기의 관행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한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의 교회력에 따른 절기의 중심이다. 즉, 절기 예배무용은 교회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 년 내내 기억하면서 그가 하신일과 은혜에 초점을 두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다고 할 수 있다.

(2) 안무는 대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각 절기에 합당한 표현들이 춤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성령 하나님께 의뢰한다. 먼저 곡을 선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춤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찬양을 묵상한다. 그리고 음악을 자주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 즉흥 춤을 추면서 인상적인 동작구를 찾아내고 음악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도록 동작을 구성하고 엮는다. 작사자의 의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춤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심을 인정하며 진정한 안무자이신 하나님의 조명을 더 깊이 간구한다.

(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찬양의 가사가 표현, 전달되도록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얼굴의 근육, 시선, 모든 근육과 세포까지 춤을 추도록 내 안에서 먼저 진실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춤에서 무용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안무하며 동작의 단순함과 순수성을 추구한다.

(4) 안무하신 절기 예배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순절**-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 아래 믿음이 강화되도록 안무와 내용을 연결하도록 한다.
- 부활절**- 부활절을 기독교 절기의 중심이라고 여겨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기쁨을 나타내는 동작들로 구성한다. 손을 높이 들거나 기쁨으로 뛰거나 꽃이나 축하를 나타낼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 하기도 한다.
- 추수 감사절**-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군무로 된 한국적인 색채의 춤을 연출해 왔다.
- 대림절**- 메시야의 오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주안점을 둔다.
- 성탄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는 감격과 소망을 나타내고 나아가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동작의 의미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무용수와 관객이 구분되는 절기 무용보다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기뻐하며 함께 표현해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단순

하지만 온 회중과 춤의 움직임을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그(절기)’이다. 손만 잡고 돌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켰던 그 축제적 움직임들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가능하도록 절기 무용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춤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하그’의 움직임을 교회에서 실행하기에 한국 정서상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교회들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의 춤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음악선택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가사가 성경적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복음)를 재표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며, 주로 송정미, 박종호씨나 합창 음악 등 장엄한 종류의 음악을 선호한다.

(7) 절기 예배무용에 사용했던 음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사순절**- 하나님의 어린양, 고난의 길,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등이 있다.
- 부활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헨델의 메시아, 약한 나로 강하게,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등이 있다.
- 추수 감사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있다.
- 대림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 있다.
- 성탄절**- 유대 땅 언덕에, 거룩한 밤, 천사들의 노래가, 고요한밤 거룩한 밤 등이 있다.

(8)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 사순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했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큰 천을 사용했다.
- 부활절**- 성경에 예수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사용했으며, 환호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또한 축하의 의미로 흰 꽃을,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을 사용했고, 승리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작은 깃발을 사용했다.

·추수 감사절- 우리나라 전통무용에서 사용하는 축제의 의미로 반고와 부채를 사용했다.

·대림절, 성탄절- 소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9)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을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의상은 교회력에 따른 색채의 의미와 상징을 고려했고 부활절, 성탄절은 흰색 (정결, 승리)를 의미하며, 추수 감사절은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는 편이다.

(10) 일반적인 워십댄스와 달리 절기 예배무용을 지도. 훈련할 때 차별화 된 방법이 있습니까?

곡과 무용의 장르에 따라 무용의 기본을 먼저 지도한 후 안무 된 곡을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상기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서로 간의 삶을 독려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춤이 이루어지도록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화하며 인간관계 훈련도 중요시하여 그에 따른 공동체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일상의 삶을 나눈다.

(1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순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총 아래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력이라는 것을 강조 한다.

·부활절- 기독교 절기의 중심이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적 절기가 되도록 한다.

·추수 감사절- 근대에 이르러 지키게 된, 특히 서구와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이다. 물론 구약성경의 초막절과 연관이 되는 것은 같

지만 이때는 우리나라 정서와 상응하도록 한국적인 춤사위 등의 특성을 살린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나와 우리, 민족과 세계가 누리는 복락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 한다.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미의 절기로 칸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인 만큼 감사와 기쁨의 춤이 되도록 안무한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에게도 참된 생명력이 나누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무한다.

(1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은혜)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성탄절 곡 중에,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안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서 엎드려 통곡하며 운 적이 있다. 안무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것 같다.

(13) 본인이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부활절곡인 “메시야”를 좋아한다. 마치 천상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음악과 춤의 환호 같이 느껴진다.

(1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재 표현하는 효과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몸의 외침이라는 파급력이 있다. 춤추는 자들의 영성이 회복될 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15) 지금까지 안무자께서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외에 다른 절기를 무용

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념하는 절기 중심으로 절기 무용을 안무해 왔으며, 성령강림절을 해보고 싶다. 성령의 실체를 그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을 표현한다거나 오순절에 임하신 불의 혀 같은 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에는 몸의 표현이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성령님의 더 충만한 내주하심이 그분을 이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춤을 만들어 가고 싶고 춤추는 자의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을 위한 무용도 안무하고 싶다.

(1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기독교 절기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제정된 절기에도 필요하지만 주일 예배 때도 교회의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게 되면 좋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나도록 안무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무용수는 관객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기독교 무용인의 연합과 하나 됨이 기독교 무용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3) C팀 리더

(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안무자와 무용수들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재가 되게 하는 데에 그 중심을 둔다. 안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안무자가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안무자의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배무용수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 고민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재 혹은 체험’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안무자의 생각, 의지, 감정이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격으로 취하여 그 생명을 생활로 표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더해져 갈 때 안무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렇게 성장하는 안무자의 안무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용으로 하는 실재 간증’이 된다. 이러한 성령의 다스림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내주하심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무는 대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절기 예배무용 작품은 대부분 가사가 있는 CCM에 안무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안무자로서 예배 중에 마음 깊이 감동받은 CCM 찬양곡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과 연결된 CCM 찬양곡을 선택한다. 찬양곡을 선택한 후에는 내게 주어진 안무의 은사를 주신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제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으로 안무자의 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채우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충만함으로 채워진 마음과 함께 안무자가 할 수 있는 움직임(무용테크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안무자가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안무에 대한 확증(기쁨, 감사, 평안, 위로, 안정감등)이 있는데, 안무자의 시각에 안무자가 표현하려는 작품의 주제보다 안무자의 불필요한 무용동작이 눈에 띠는 경우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수정한다.

(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무용의 어떠함이나 안무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즉 그분의 본성과 속성의 나타남’을 고민하며 절기 예배무용 작품을 통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더 전해지기를 바란다.

(4) 안무하신 절기 예배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기 예배무용은 안무자와 무용수 또한 회중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의 구속의 은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둔다. 더 나아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사순절- 사순절 예배무용 작품을 제일 많이 안무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 님의 어린양의 피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어린양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의의 흥배이기에 어린양의 피에 대한 메시지는 안무자와 무용수들을 새롭게 한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승고하고도 철저한 복종을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는 치료제로써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예수님이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대신한 십자가’만을 묵상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함께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나와 육체, 옛 사람, 사단, 사단의 왕국, 죄와 죄들, 세상과 사망, 자아 등이 처리되고 해

결되었음을 믿고,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형태에 메시지를 담아 무용으로 표현한다.

-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 부활생명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을 물리치고, 어두운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녀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힘 있는 동작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힘 있는 동작을 표현한다.
- 성령강림절-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권위 있는 옷을 입었던 120명의 초대교인들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외적으로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로 부터 위임받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성령강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담은 기도의 동작이나 때로는 무릎을 꿇어 통회하며 자복하는 동작을 표현한다.
- 추수 감사절-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양한 감사의 고백을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몸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대림절- 오랜 기간 사단의 포로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염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작을 표현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
-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작을 통해 경외감을 표현하

며, 찬양하는 동작을 통해 기뻐하는 동작을 표현한다.

·주현절- 이 절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두에게 알려지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미덕 안에서 살아내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살아내신분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동작을 한다.

(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 만큼 안무의 내용은 달라진다. 결혼을 하고 출산한 후 아이를 키우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예배무용 안무를 1년 정도 쉬었던 적이 있었다. 안무를 다시 시작하기 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깊은 깨달음이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주님께 갈망하고 기도했던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보다 깊이 있는 작품을 안무할 수 있었다.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것을 늘 갈망하며 기도한다. 이때 안무자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안무가 나오게 된다. 때로는 의무감에 안무하기도 한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안무의 일은 안무자에게 매우 힘든 노동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안무는 어렵게 되고, 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말씀이 로고스의 문자, 혹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임을 느낀다.

(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 할 때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CCM 중에 예배드릴 때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음악을 선택해야겠지만 모든 예배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한다. 그것

은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는 음악을 사용하고, 클래식 악기를 사용한 음원 중에 회중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한다. 주로 사용하는 CCM 음반은 박종호, 송정미, 남궁송옥, ANM 경배와 찬양 등의 찬양곡을 주로 사용한다.

(7) 각 절기 예배무용에 주로 어떠한 음악을 사용했는지 알려 주세요

- 사순절-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의 눈물, 박종호의 내가 주님을, 십자가와 나, 경배와 찬양의 어린양의 흘리신 피로, CCM클래식의 우리 때문에 등이 있다.
- 부활절- 박종호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예수전도단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옹기장이의 다시 사신 구세주,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경배와 찬양의 선포하라, 우리가 이일에 증인 되었으니 등이 있다.
- 성령강림절- 시와 그림의 임재,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빈들에 마른 풀같이, 경배와 찬양의 성령의 불로가 있다.
- 추수감사절- 조수아의 감사 찬송, 시와 그림의 감사해,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최인혁의 감사해요, 주찬양의 감사하세요, 경배와 찬양의 오직 주께, 정경주의 아름다운 세상과 등이 있다.
- 대림절- 경배와 찬양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옹기장이 임마누엘, 소망의 바다의 임마누엘이 있다.
- 성탄절- 경배와 찬양의 참 반가운 신도여, 오 거룩한 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 찬송하기를, 박종호의 주께 영광, 마커스의 임마누엘, CCM클래식의 사랑의 왕, 그 아기 누굴까 등이 있다.
- 주현절-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8)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 사순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 빨간 천을, 예수님을 조롱

하던 것으로 의미된 가시판,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로 사용했다.

.부활절- 승리를 뜻하는 탬버린을 사용했다.

.성령강림절-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절-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소고, 탬버린을 사용했다.

.대림절-사용하지 않았다.

.성탄절- 기쁨을 표현하고자 리본을 사용했다.

.주현절- 복음을 나타내는 성경책을 사용했다.

(9)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은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의상은 무용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의상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용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의 그 기능에 합당한 것으로 거룩한 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각 절기에 따라 의상의 디자인과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의상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찬양곡에서 주는 메시지를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어떤 메시지와 주제를 드러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는데 주로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 의상에 많은 시선을 빼앗고, 다른 상상을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를 최대한 제한하도록 한다.

색깔을 볼 때 사순절에는 죄와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을 표현하기 위해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승리와 축하를 상징하기 위해 흰색을 주로 사용하며, 감사절에는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는데, 감사가 회복된 것을 표현하는데에 적합한 것으로 검정에서 흰색으로 발전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사용한다. 성령강림절은 회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색깔을 사용하기도 했다.

(10)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배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교자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예배무용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안무자의 눈에 볼 때 예배무용수가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무용수들이라면 절기예배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무용수라면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에 이 무용수는 다른 믿는 이들의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1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어린양의 피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의의 흥배이기에 어린양의 피에 대한 메시지는 안무자와 무용수들을 새롭게 한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승고하고도 철저한 복종을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는 치료제로써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대신한 십자가’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함께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나와 육체, 옛사람, 사단, 사단의 나라, 죄와 죄들, 세상과 사망, 자아 등이 처리되었음을 믿어야 한다.

·부활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

람이 되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을 물리치고, 어두운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강림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옷 입고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께로 부터 위임받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추수 감사절**-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 또한 시험과 환란과 펫박 또한 감사할 조건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대림절**- 오랜 기간 사단의 포로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염원하며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여 기도하며 기다린다.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시기 위해 인간 생활을 하셨다.

(1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 (은혜)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09년 부활절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주님의 눈물”과 부활절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라는 곡을 안무하며 강습회 교재를 만드는 데에 3일 동안 이유도 알 수 없이 몹시 아팠던 경험이 있다. 평소 몸살과는 다른

증상이었기에 조금 아프다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교재를 쓰게 되었다. 피로 때문에 오는 증상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던 나는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강습회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는 일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의지를 드려 죽을힘을 다해 인내하며 견디어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무를 정리하며 교재 쓰는 일을 마무리하는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거짓말 같이 몸에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음에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도 모르고 끙끙 앓으며 교재를 쓰다가 누웠다가를 3일을 반복한 후에 4일째 되는 날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난 후에 깨달을 수 있었다. 안무의 일과 교재 쓰는 일을 통해 내 자아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체험이었다. 또한 안무자는 그 강습회를 통해 중요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

(13) 본인이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안무자로서 좋아하는 작품은 사순절 작품으로 “주님의 눈물”이다. 안무자로서 어떤 작품을 안무하고 수년이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볼 때 그 안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기쁨이 온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게 되어 있다. “주님의 눈물”은 안무자 자신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간 흔적이 묻어 있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그 작품은 안무자로 하여금 안무자의 어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은혜를 Muk상하게 한다.

(1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절기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Muk상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혹은 영적으로 정상

적인 상태인지를 양심의 소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1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해 오신 분으로서 절기 예배무용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안무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지식이나 교리 혹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은 실재의 체험이 있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안무자가 절기예배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그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 스스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를 확실한 증거를 통해 검증해 봐야 한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절기예배무용을 안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조언하고 싶다.

4) D팀의 리더

(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절기별 유래와 의미 고찰를 한다. 둘째, 성경에서 나오는 성서적 동작들과 그 움직임의 이해를 토대로 한다. 셋째, 기독교 무용사적인 절기예배무용의 동작(step, turn 등)이나 그 형태 연구를 한다.

(2) 안무는 대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절기무용 컨셉을 설정하고, 찬양 곡을 선정한 후 선정된 곡을 배경으로 기도하며 구상하며, 이 과정으로 안무를 하였다.

(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무용의 모습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성경의 인물 중 살로메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춤을 추었는데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행 하여지는 무용은 그것이 비록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진다 하여도 우상숭 배가 될 것이다. 반면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기적 후 무용을 통하여 선지적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춤을 올려드렸다. 이는 예배무용의 좋은 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예배무용은 어떠한 때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하여 져야하고 세상무용의 동작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지 말고 깊이 있는 기도와 성서에서 나오는 동작들을 연구하는 등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임들을 거듭나게 하여 실행시켜야 한다.

(4) 안무하신 절기 예배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이나 슬픔 등의 표현을 위하여 다리를 질질 끄는 형태의 동작이나 상체를 기울이며 도는 듯한 동작들이 많이 사용된다.
- **부활절**- 변화와 다시 살아남의 동작표현으로 step, Jump, Turn의 변형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회전의 동작들이 많은 편이다.
- **추수 감사절**- 예배무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작들을 사용한다.
- **성탄절**- 기독교 무용사를 살펴보았을 때 크리스마스의 캐럴은 원래 춤과 노래를 함께한 춤곡이었다. 중세 시대의 캐럴무용 형태에는 “트리피디엄(Tripidium)”이라 3박자 스텝이나 원형무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뛰기나 껑충 뛰기 또는 행렬의 모양의 스텝들이 행하여졌다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의 재현과 창작을 함께한 형태의 안무를 사용하였다.

(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절기 시즌에 기독교 단체의 행사요청이 오는데, 행사의 규모나 형식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하거나 안무를 수정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때에 안무할 시간이 촉박하거나 준비기간이 짧을 때가 있다. 또 규모가 클 경우 함께 참여하는 예배무용 단원들의 의상이나 분장, 소품 및 무대에 필요한 장치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무용 또한 기독문화예술이고 창작의 한 부분으로의 기독교 안에서의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이를 위한 물질적 지원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 할 때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가사 내용이 절기의 의미와 부합되는 찬양을 선택하거나 창작무용을 할 때는 작품 컨셉에 따른 음악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7) 절기 예배무용에 사용했던 음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사순절- 눈물로 찢은 발, 약한 나로 강하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마리아의 고백(창작 무용곡)이 있다.

·부활절- 메시아, Once Again,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무덤에 머물러,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가 있다

·추수 감사절- Give Thanks,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시편 100편이 있다

·성탄절- 노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O Holy Night, 천사들의 노래가가 있다.

(8)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순절- 마리아의 춤을 표현할 때 향유를 주의 발 앞에 드리는 모습이 담긴 의미를 가지고 향유옥합을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빨간 천을 사용했다. 그리고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가시관과 고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무대에 배치하거나 십자가 메고 걷는 표현에 십자가를 사용했다.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상징 할 때 하얀 천을 사용했다.

·추수 감사절- 승리와 전진을 통한 감사를 의미로 장구, 소고, 깃발을 사용했다.

·성탄절- 천사날개와 같이 성탄절곡 거룩한 밤을 표현할 때 하얀 천을 사용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로 촛불 모형을 사용했으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천사날개를 사용했고, 구유와 마리아 요셉의 인형 등 의 모형으로 무대 소품으로 마궁간 모형을 사용했다.

(9)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을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사순절- 주로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붉은색 사용하였다. 예수님의 상, 마리아 의상, 군중의 의상 등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상을 재현하여 그 당시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춤으로 표현한다.

· 부활절- 흰색을 사용한 의상으로 거룩한 부활과 승리를 표현한다.

· 추수 감사절- 다양한 색상과 의상을 사용하였는데, 한국무용 의상과 현대적인 의상도 사용하였고 풍성한 열매와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흰색의 계열의 의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동방박사나 목동,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주로 파스텔 톤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강렬하거나 색상 대비가 심하지 않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연출하여 의상을 입었다. 또한 지금시대의 맞는 현대적 의상을 종종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배 무용시의 의상들은 노출이 심하거나 비치는 등의 의상을 배제하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의상을 입어야 하며 의상뿐 아니라 헤어나 메이크업 도 조화를 이루어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의

상, 헤어와 메이크업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컨셉 회의를 거쳐서 안무에 맞추어 제작되어졌다.

(10) 일반적인 워십댄스와 달리 절기 예배무용을 지도. 훈련 할 때 차별화 된 방법이 있습니까?

관련 말씀의 묵상과 실제 묵상한 내용의 은혜 나눔과 실생활에의 적용 등을 이야기하며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훈련은 예배무용가들의 실제 예배무용의 작품에의 몰입도가 향상되며 회개 및 결단과 치유를 가져오고 더욱 정결한 자세로 예배무용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크다.

(1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은 곧 사랑이고 이를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 부활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의 자녀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의 메세지를 기쁨으로 표현 한다
- 추수 감사절- 열매있는 삶을 위한 그간의 수고에 대한 위로 및 감사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이다.
-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기쁜 소식(복음)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자는 선교의 메시지이다.

(1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은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탄절에 남미 선교투어 공연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무용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지인들과도 복음의 메시지가 소통되어 참회의 눈물과 영접의 계기가 되는 것이 놀라웠고 실제로 예배무용의 춤을 추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체험들을 하며 주님이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

안이 충만히 넘치는 경험들을 하였다.

(13) 본인이 안무한 절기예배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탄절곡인 “O Holy Night”을 안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죄인을 구하려 오신 복음적 내용의 가사 때문이며 두 번째, 이러한 복음 내용을 춤추며 받은 감격이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매우 강하게 와 닿아서 이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천천히 엎드려 경배하는 부분의 움직임에서는 예배무용을 보는 이들이 큰 박수를 저절로 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순간이 참으로 기뻐서이다.

(1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기 때 하는 예배무용, 특히 성탄 절기의 캐럴무용을 통한 선교는 사회적 이념과 인종, 언어를 초월하여 훌륭한 선교의 도구로 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캐럴로 안무된 예배무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공연을 하였으며 일본도 크리스마스 캐럴로 된 예배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주님을 모르는 일반인 관객들도 따라 하기까지 하였다.

(15) 지금까지 안무자께서 안무한 절기 예배무용 외에 다른 절기를 위한 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현재의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절기 행사 및 특별순서에서 행하여지는 예배무용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구약에서 중요시여기는 유월절과 초막절 무용을 안무하고 싶다. 유월절은 봄철에 이루어지는 축제절기로 구원의 사실을 반영한 기쁨의 춤으로 새 신자 전도축제나 교회 감사 예배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무용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고, 초막절(수장절)기는 유대인들이 선조들의 광야생활을 기념하는 가을축제 절기로써 회개와 애도, 결단

등의 내용을 담아 교인전체가 함께 행렬무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깃발 춤이나 횃불, 뽀나팔 등을 사용하여 안무되어진 예배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해 오신 분으로서 절기예배무용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기의 의미에 맞게 안무되어져서 교인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절기 예배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자칫 보여주기 행사에 치우쳐서 행하여지는 경우나 예배무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인식들이 부족한 면이 간혹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사명으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천하며, 또 예배무용의 연구에도 계속적인 정진이 있었으면 한다.

5) E팀의 리더

(1)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절기를 이해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삶의 행위나 축제 등이 이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이 형식적인 무용 동작이 아닌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

(2) 안무는 대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안무는 말씀과 다양한 예술분야(기독교 소재의 미술과 영화를 참조)의 영감을 통해 진행된다. 특별히 제목을 정할 때는 본 교회의 설교제목에서 시작이고 예술적인 제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 제목 등을 메모하여 두고 사용하기도 한다. 기도와 말씀 또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며, 삶의 여정에서 찬양을 통해 때로는 곤고하게 때로는 기쁨의 감동을 받아 안무를 하기도 한다.

(3)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배무용 내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안무가 동떨어져지지 말 것을 주의한다. 즉,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므로 거추장스러운 동작이나 소품, 무대효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4) 안무하신 절기 예배무용들 중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순절- 고난, 마리아의 고백을 하는 안무에 초점을 둔다. 첫째, 고난은 골고다 언덕에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난을 극화한다. 둘째,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마리아의 고백과 눈물을 춤으로 표현한다.

·부활절- 고난, 마리아의 고백, 할렐루야(부활) 순으로 3가지 부분의 무용극으로 안무를 했으며, 할렐루야라는 곡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과 긍휼을 베풀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온몸으로 고백한다.

·추수 감사절- 수확의 기쁨을 개화기시대 여성들의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시편 118편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50편1-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탄절- 마리아, 요셉, 천사, 동방박사의 역할을 맡은 무용수는 성경적 상황

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상황의 나라면 어떠하였을까?라는 각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안무를 하였다.

(5)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 하시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성경시대의 근접한 분위기를 찾아내어 나타내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의상을 표현할 때 통자로 된 이스라엘의상을 사용할 때 무용의 신체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절기예배무용이라는 특성 상 장소가 일반적인 극장이나 무대가 아닌 교회인 경우가 많은데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 분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할 때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기독교 음악 뿐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다. 해외 선교지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곡 (Amazing Grace, 할렐루야)과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한국의 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아리랑)

(7) 절기 예배무용에 사용했던 음악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사순절- 본향,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회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갈보리산 위에, 주께 가오니, 죽으면 죽으리라, 천번을 불러도 가 있다.

.부활절- 그의 사랑,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메시아가 있다.

.추수 감사절-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할렐루야 우리예수, 나의 영혼 싸울 때가 있다.

.성탄절- 동방박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이 있다.

(8) 무용에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그 소품들에 특정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순절- 예수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의미하며 옥합을 사용 했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로 대나무를 사용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 천을 사용했다.

·부활절- 승천의 의미로 파란 천을 사용했고, 기쁨의 의미로 소고를 사용 했다.

·추수 감사절- 추수를 의미로 키를 사용했고, 기쁨의 의미로 소고를 사용 했다. 그리고 한 삼, 꽃, 아박은 화관무를 할 때 사용하였으며, 기쁨을 표현했다. 향발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했다.

·성탄절- 구유에 누이신 아기예수를 나타낼 때 요람을 사용했고, 황금, 도자기병: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황금, 유향, 몰약)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 그리고 천사의 의미로 화관을 사용했으며,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을 사용했다.

(9) 의상의 디자인이나 배색을 각 절기에 따라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사용하고, 천사용에 있어서 굵고 풍성하게 착용한다. 부활절은 깨끗하고 하얀 의상으로 색깔로 의미를 둔다. 추수감사절은 개화시기를 생각하여 만들었기에 광목치마, 쓰개치마 등, 그 때의 모습 속에서 의상을 선택하여 표현 하였다. 성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상, 천사의 하얀색 의상을 사용한다.

(10) 일반적인 워십댄스와 달리 절기 예배무용을 지도. 훈련할 때 차별화된 방법이 있습니까?

무용 연습 전 단원들은 서로의 삶과 간증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훈련을 한다. 절기예배무용을 안무할 때에는 말씀묵

상, 절기에 관련한 말씀, 단원들의 간증 나눔을 통해 진행하며 동작을 말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연결하여 지도하는 방법을 취한다.

(11) 안무가로서 각각의 절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순절- 우리를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부활절-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추수감사절- 추수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인물들, 동방박사, 천사, 목자를 통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12)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자께서 받았던 특별한 느낌이나 간증(은혜)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사순절에 “그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표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할 때 무용수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진 걸 단원들과 나눴는데 단원들도 동일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13) 본인이 안무한 절기예배 무용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부활절에 맞게 안무한 ‘Born again’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어디든 가서 주의 십자가를 전하리라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이다. 예수께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나병환자의 나병은 몸 안에서 발병하여 몸 밖으로 드러나는 질병으로 그것은 마치 인간의 죄와 유사한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병환자의 치유함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는 것 이외에는 치유가 불가능 하므로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

음을 담에 예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는 진정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복음의 증거를 보이신 것이다.

(14) 안무자께서 생각하시는 절기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무용 팀에게 있어서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는 절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이 되어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절기무용의 역할 속에 인물을 닮아가려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준비하는 등 나를 버리는 작업등을 하므로 무용팀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관중인 성도들에게는 절기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다 쉽게 공감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15) 지금까지 안무자께서 절기 예배무용 외에 다른 절기를 위한 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외에 대림절, 주현절, 성령강림절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6) 절기 예배무용을 안무해오신분으로서 절기 예배무용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기예배무용은 본 교회와 양로원, 병원 등 상황과 장소에 맞게 공연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절기예배무용을 통해 먼저 은혜 받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안무를 통해 안무자와 단원이 먼저 치유가 되고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기 예배무용을 한다면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삶이 변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흔탁해져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선교무용 안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절기예배가 기독교무용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며 각 교회에 훈련된 기독무

용의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제 2 절 절기 예배무용 창작 접근법

절기 예배무용 안무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절기 예배무용 창작은 다음의 8가지 단계 및 구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절기에 대한 이해

연구자는 각 절기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무가들이 관심을 두고 창작해 온 절기들은 사순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대림절, 주현절, 성령강림절이다. 각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사순절은 종려주일(부활주일의 전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 나)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 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지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께서 오셨는데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라) 추수 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유래하여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 감사의 의미로 지키고 있다.
- 마) 대림절은 성탄절 전의 4주일을 포함하는 절기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준비하며, 장차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뜻한다.
- 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죄악의 어두운 영광이 승리한 세상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 사) 주현절은 세상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킨다.

2) 묵상 및 기도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해서는 절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안무가들이 관련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적절한 메시지 표현이 효과적으로 무용작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절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리더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눈다. 그 후 절기 기간에 삶 속에서 연약함과 은혜를 나누고 회개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한다. 기도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무 할 수 있도록, 절기 예배무용이 모방이 아닌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나오도록, 자기 자신과 관객의 만족을 주는 동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 되도록 기도한다.

[표4-2 절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사순절	이사야 42장 1-9절, 에스겔 37장 11-14절, 마태복음 20장 20-33절, 요한복음 12장 20-33절, 히브리서 5장 7-10절, 마태복음 21장 1-11절, 마가복음 11장 1-10절, 누가복음 19장 29-40절, 요한복음 12장 12-19절.
부활절	요한복음 11장 25-26절, 로마서 6장 5절, 사도행전 1장 21-22절, 사도행전 2장 31-32절, 로마서 8장 3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고리도전서 15장 20절-21절.
성령강림절	요한복음 15장 26-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16절
추수 감사절	시편 100편 4절, 시편 107편 22절, 에베소서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골로새서 2장 6-7절, 벨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
대림절	이사야 53장 4절-10절, 예레미야 33장 14-16절, 누가복음 1장 26-31절, 요한복음 13장 8절
성탄절	이사야 52장 7-10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14절
주현절	이사야 60장 1-6절, 에베소서 3장 1-12절, 마태복음 2장 1-2절

3) 주제 및 방향성 설정

각 절기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장소나 행사의 유형 등 방향을 설정한

다. 고려해볼 사항은 첫째, 장소(국내, 해외, 교회, 길거리, 공연장)를 알아본다. 둘째, 목적(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설교를 돋는 메시지를 갖는지, 선교를 위한 공연, 길거리 사역)을 갖는다.

[표4-3 각 절기와 관련된 주제 및 메시지]

사순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절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하는 소망과 기쁨
성령 강림절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누가복음 22장 30절 ¹²⁰⁾ 에 나온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
추수 감사절	추수 열매와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
대림절	사단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이 인류를 구원하시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메시지
주현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기간에 우리도 성령의 안에 거하도록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4) 음악 선택

절기에 대한 이해와 무용 창작을 위한 주제, 메시지가 결정되면 안무가들은 그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였다.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접 할 수 있는 CCM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송정미, 박종호, 남궁송옥 등의 음반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합창단 곡과 클래식 악기 연주곡,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음악선택의 기준은 하

12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비치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영광이니라”

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인도하심이 있는지와 예수 그리스도(복음)를 표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타인이 사용하는 곡을 사용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곡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순절은 주로 음악이 애절하며 슬프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부활절에 사용된 음악은 경쾌하고 빠른 박자를 자주 사용한다. 제목과 가사 중에 할렐루야(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쁨이 넘친다. 추수 감사절은 가사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나님 이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게 함으로 눈물의 고백과 때론 베풀어 주신 열매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곡을 느낄 수가 있고 국악 찬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성탄절 곡은 "O holy night"를 많이 안무하였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된 찬양이기에 국내, 해외에서도 가능하여 성탄절 절기에 선교의 도구로 쓰기 에 적합하였고 예수님 탄생의 거룩함과 웅장함, 기쁜 소식으로 인한 기쁨의 멜로디를 느낄 수 있었다.

[표 4-4] 절기 예배무용을 위한 곡

사순절	거기 너 있는가, 비아돌로로사, 그, 하나님의 어린양, 고난의 길,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의 눈물, 내가 주님을, 십자가와 나, 우리 때문에, 눈물로 씻은 발, 회개, 갈보리 산 위에, 주께 가오니, 천 번을 불러도
부활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사신 구세 주, 주의 이름 높이며, 메시아
성령 강림절	기름 부으심
추수 감사절	감사의 정원, 시편100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해요, Give Thanks, 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시편100편
대림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Oh holy night, 천사들의 노래가, 고요 한 밤 거룩한 밤, 참 반가운 신도여, 오 거룩한 밤, 찬사들의 노래가, 천사 찬송하기를, 노엘, 그 아기 누굴까

5) 움직임 창작

음악을 선택한 후에는 그 음악을 분석,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움직임

창작에 들어갔다. 각 절기에 따라 안무가들이 움직임을 창작하는데 바탕이 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표현했으며 그가 구원해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¹²¹⁾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자신도 함께 못 박힌 십자가의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상체를 아래로 숙이며 힘겹게 지고 가는 동작을 사용하였다.
- 나) 부활절은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점프나 손을 드는 동작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담대하고 힘 있는 동작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깽충껑충 뛰거나 회전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다) 성령강림절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를 덮는 표현과 기도 손을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을 향해 올리는 동작을 반복 하였다.
- 라) 추수 감사절은 그간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위한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안무자들은 주로 한국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키를 들고 추수의 모습을 나타내보이기도 하고 소고를 사용한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 했다. 또한 안무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무대로 사용하여 실제 추수의 감사에 대한 풍성함을 더해 주기도 하였다.
- 마) 대림절은 메시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의미를 두고 표현하며 영접할 준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나타내고자 했다.
- 바) 성탄절은 주제 표현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대로 마구간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께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목자, 천사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어 기뻐 뛰는 동작이나 엎드려 절하는 움

12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직임을 사용하였다. 또한 무용극과 같은 유형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캐롤 무용의 형태 중 “tripudium(트리 퓨디엄)”이라는 3박자 스텝이나, 원무, 르네상스 시대의 행렬 등과 같은 동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사)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심을 나타냈다.

6) 소품의 특성 결정

움직임 창작과 함께 각 절기나 성경과 관련하여 소품의 의미를 찾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소품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31장 27절, 출애굽기 15장 30절에 홍해바다를 마른땅으로 걸어간 미리암이 기쁨과 축제를 나타내기위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시편 1편 2절, 149편 3절, 150편 4절에서 소고를 들고 찬양하며 춤추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성경에서 깃발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을 물리치고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승리를 외칠 때 사용한 것이다. 부활절 때 사용된 종려나무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때 사용하였다. 그 밖의 한국전통무용에서 사용하는 부채, 향발, 한삼, 청사초롱, 천을 활용하여 안무한다.

[표 4-5] 각 절기에 따라 사용된 소품의 의미

절기	소품	소품의 의미
사순절	빨간 수건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가시관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
	옥합	마리아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
부활절	하얀 수건	예수님의 성결함과 부활

	하얀 부채	부활
	종려가지	환호
	흰 꽃	축하
	리본	기쁨
	깃발	승리
	파란 천	승천
	소고	기쁨
추 수 감사절	곡식 단	수화
	소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기쁨
	탬버린	기쁨
	장구, 소고, 깃발	승리와 전진을 통한 감사
	키	추수
	한삼, 꽃, 아박	기쁨
	향발	감사
	청사초롱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님의 피
성탄절	리본	기쁨
	하얀색 천	천사의 날개
	촛불모형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 날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
	화관	천사
	황금, 유향, 물약	예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예물
	별	동방박사가 따라가던 것
주현절	성경책	복음

7) 의상 디자인 및 색상 구성

의상의 디자인 및 배색을 살펴보면 메시지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옷을 선택하며 노출이 없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은 옷과 시선이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의상을 입었다. 전반적으로 색상은 교회력 색깔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사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어두운색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디자인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과 검은색이 혼합된 느낌의 무늬와 빨간 천을 가슴에 두르는 포인트를 두는 의상을 많이 사용한다. 추수감사절은 한국적인 의상을 주로 착용하며, 성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반짝이는 천으로 된 의상과 천사를 나타내기 위해 하얀 천을 날개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연출한 의상이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의상보다 주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표4-6] 각 절기에 사용된 의상의 색상과 의미

절 기	교회력 색깔과 의미	색 상	의 미
사순절	보라색(그리스도의 위엄), 검정색(회개), 빨간색(고난, 희생)	검은색	죄와 회개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고난
		보라색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절	하얀색(축하, 기쁨, 승리)	하얀색	정결, 승리, 축하
성령 강림절	빨간색(성령의 불, 경건)	검정색, 회색	회개의 입장
추수 감사절	없음	다채로운 색상	개인의 수학과 여러 가지 열매를 표현하기 위함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발전하는 그러데이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표현
성탄절	하얀색 (승리, 청결)	하얀색	천사를 표현
		금색	왕을 의미
		반짝이는 천	빛을 표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파스텔 톤을 사용	조화로운 분위기 연출

8) 단원 훈련

단원훈련은 창작과정만큼 매우 중요하고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안무가들은 절기 예배무용을 무용수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다른 무용과 달리 절기에 대한 말씀과 묵상, 이론에 관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통해 훈련한다. 또한 교회력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상기 시키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여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동작마다 말씀과 연결이 되도록 지도한다. 안무가 중에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즉흥과 자기표현으로 무용 움직임을 통한 무용수의 몰입을 훈련하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연습 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신체 훈련의 필요성과 표정, 무용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무용과 신학을 전공하여 14년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진 다섯 명의 안무가들의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한 다섯 명의 리더는 교회 소속의 팀이 아닌 선교단체 팀으로 여러 교회, 국내기관, 예배무용 보급을 위한 강습,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무용단을 이끌어왔다. 안무가들은 주로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안무, 공연을 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절기를 위한 예배무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절기 예배무용을 통해 안무가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자신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치유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절기 예배무용의 효과 및 영향력은 목회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며 성도들에게 기쁨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절기 예배무용은 복음을 표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춤추는 자들의 영성 회복과 은혜에 동참시키고 입체적(시각적, 청각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선교의 도구로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절기 예배무용을 창작, 공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안무할 때 아쉬운 점은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절기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를 모색하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의미가 있는 절기를 깊은 깨달음과 성령 충만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안무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용수와 관객이 절기의 기쁨을 함께 표현하지 못하는 인식과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깊은 깨달음을 얻는 데 오래 걸린다. 또한 소품, 무대의상 등의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조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경적인 의상을 가져 왔을 때 신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

절기 예배무용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절기 예배 무용 창작은 8가지 단계 (첫째, 절기에 대한 이해, 둘째, 묵상 및 기도, 셋째, 주제 및 방향 설정, 넷째, 음악선택, 다섯째, 움직임 창작, 여섯째, 소품의 특성 결

정, 일곱째, 의상 디자인 및 색상구성, 여덟째, 단원훈련)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절기 예배 무용 창작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원 및 유래와 특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절기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작을 표현해야 한다.

셋째,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안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메시지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을 안무로 구성한다.

넷째, 음악선택은 많은 사람의 선호도보다 분별력 있게 하며 절기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한다.

다섯째, 소품 사용은 성경을 기초로 각 절기의 의미에 적합한 소품을 사용한다.

여섯째, 의상의 디자인 및 색상은 성경과 절기, 교회력에 근거하고 의상의 디자인에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관객이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도록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성 있는 의상이 되어야 한다.

절기 예배무용가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안무가들과 달리 각 절기가 지닌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무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무용을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방향을 잡아 간다. 그리고 안무 창작을 위한 요소 즉 주제, 소품, 음악, 의상 선택을 잘 고려 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낸 숙련된 무용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무용 전공자는 신학적인 배경 연구가 필요하며 무용 비전공자는 무용에 대한 움직임 훈련이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절기 예배무용 안무를 위해 안무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연구로 그쳤으나 후속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이론과 현대 흐름에 맞게 적용된 절기 예배무용의 모범적인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본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권효림. (2010). 『어린이 영성 형성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절기교육: 사순절과 부활절 중심으로』. 석사논문. 총신대학원.
- 김용철. (2011). 『이스라엘 절기의 고유성과 현대적 적용』. 석사논문. 성결 신학대학원.
- 김혜숙. (2010).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교수-학습과정. 『한국기독교교육정보 학회』. 제25집. PP.99-126.
- 김은혜. (2016). 『성경에 나타난 원형적인 무용텍스트와 컨텍스트 연구: 에포트와 이론을 바탕으로』.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원.
-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 예술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종희. (2005). 『현대예배에 따른 기독교 무용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성구. (2001). 『모에드와 하그』. 서울: 서로 사랑.
- 김수경. (2000).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서울: 성은 출판사.
- 권선철. (1991). 『그리스도교 대사전』. 제1권 “교회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딕 아담스, 다이안 아파스톨로스. (2002). 『종교와 무용』. 김명숙역. 당그래 출판사
- 류모세. (2015). 『열린다 성경 절기이야기』. 서울: 두란노.
- _____. (2015). 『열린다 성경 성전이야기』. 서울: 두란노.
- _____. (2008). 『열린다 성경 식물이야기』. 서울: 두란노.
- 로버트 E. 웨버 (2006).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서울: CLC.
- 마리 벤슬리. (2002). 『매체를 활용한 크리스천 댄스』. 박영애역, 서울: 프레이즈.
- 박근원. (1979). 『교회력과 그 토착화의 가능성』. 서울: 기독교사상.
- 박영애. (2005). 『기독교무용사』. 서울: 한성대출판사.
- _____. (2010).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 기록 학회』 제18권. pp.23-39.
- 박순자. (2016). 한국교회 예배 예전 요소로서의 기독교 무용. 『우리춤과 과학기술』, 제34권 PP.93-128.
- 성경전서 개역개정
- 신수연. (2009). 『기독교무용의 교회내 활용 가능성 연구』. 석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송유순. (1990). 『기독교의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대대학원.

- 안은경. (2016).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무용』. 인천: 주빛 출판사.
- 이성훈. (2007). 『새롭게 보는 이스라엘 절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웨드워드 T. 혼. (1971). 『교회력』. 배한국역, 서울: 컨콜디아사.
- 앤 스티븐슨. (2012). 『춤, 몸으로 예배하다』 이아람역, 서울: 예수 전도단.
- 원용국. (1979).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 원근재. (2003). 『교회교육에 있어서 절기교육의 의미와 교육적 적용』. 석사논문. 협성신학대학원.
-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무용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 이소영. (2010). 『기독교 예배무용 움직임의 체험인식과 창작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세종대 대학원.
- 이주연. (2003). 『성서를 통한 예배무용의 적용방안』. 석사논문. 계명대대학원.
- 이명경. (2001). 『움직임으로 드리는 대안 예배 유형연구』. 석사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이병희. (1977). 『절기의 기념과 의의』. 성별, 통권63호, pp.20-24.
- 장재일. (2012).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상』. 서울: 쿰란출판사.
- 존 맥아더. (2008). 『참된 예배』. 서울: 두란노.
- 정석찬. (2013). 『워십 리더』. 서울: 넥서스.
-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2013).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성탄절 메시지』. 삼성민역,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 _____. (2014).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부활절』. 권오창역,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 전정진. (2005).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 정장복. (1996). 『교회력과 성서일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장영미. (2015). 『유아의 신앙 형성을 위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절기교육 프로그램: 사순절 부활절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 장신대학원.
- 조선하. (2016). 『한국교회 공 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숙명여자대학원.
- 조승미. (1996). 『성서를 통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건국대학교.
- 조은화. (2006). 『예배개신과 춤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한신대 신학전문대학.
- 최진호. (2010). 『쉽게 설명한 교회절기』. 서울: CLC.
-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
- 최지연. (2017). 『교회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박사논문. 장신대.
- 최재윤. (2004). 『기독교 문화로서 C.C.D에 관한연구』. 석사논문. 총신대학원.
- 한의택. (2007). 『성막과 절기를 알면 예수가 보인다』. 서울: 예루살렘.
- 한재선. (2014). 『성서에 나타난 무용의 유형과 현황연구』. 석사논문. 용인대학교.
- 한국 예배학회. (2018).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성탄절- 구유에 누운 진리의 빛』. 장로회신학교, pp.14-15.

2. 국외 문헌

James F. White. (2000).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인터넷 웹 사이트〉

한국 컴퓨터 선교회. <http://kcm.kr>.

웹진 아르코. <http://arko.or.kr/home2005/bodo/sub/forest.jsp?idx=1858>.

연합 뉴스. <http://v.media.daum.net/v/1990062111530084>.



ABSTRACT

The Study on an Approach to the Composition for Liturgical Dance of Season

Lee, Wan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processed with the in-depth interview which is composed of five choreographers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who majored in both theology and dance and have worked as the leader of the dance company with 14 to 20 years. They were interviewed with five components which were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seasonal liturgical dance, schaffensmethode and movement types, music, costumes, the usage of props, dance member training methods, and other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of seasonal liturgical dancers, the creation of the seasonal liturgical dance can be composed of eight

levels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of the season, second, meditation and prayer, third, setting of the theme and direction, fourth, choice of music, fifth, creation of movements, sixth, characteristic of props, seventh, design and color composition of costumes, and eighth, training members.

The essential particulars which must be carried for this creation of the seasonal liturgical dance are arranged as six components, and they are :

First,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meanings about the origins and the characteristics which each season has.

Second, it should be expressed with the movement which delivers the messages of the seasons by the guidance of Holy Spirit through the Bible and prayers.

Third, the dance should be choreographed with movement of Jesus centered message which can be exposed directly and not for exposing myself.

Fourth, the choice of music should be with discernment and the music should be able to deliver the meaning and message of the season and helps the movement effectively rather than the majorities' preferences.

Fifth, props should be suitable for the meaning of the season and based on the Bible.

Sixth, the design and color of the costumes should be based on the ecclesiastical calendar, the season, and the Bible, and should be active enough to help the movement, in order to concentrate on delivering the message, not to distract the audience's interest.

The seasonal liturgical dancers should be aware of the basic guidelines and they need to have appropriate attitude. Unlike other

dancers, they shoul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easons properly and this must take priority.

Based on that, the dancers take directions by praying and meditating the Bible for the choreographs which came from Jesus Christ and for the Holy spiritually filled worship. And then, theological and Biblical understanding is involved which can consider the factors for creating the dance, such as theme, props, music and costume choices. Also, for delivering the message, a dancer should be a skillful expert who can express it with their body, heart and will. Especially, those who major in dance need the study of theological background and those who do not major in dance need to have a deep training about the technique of the d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ended up in interviewing the dancers of the seasonal liturgical dance. However, if the follow up study is expected to have the practical analysis to the exemplary piece of seasonal liturgical dances which applies the theory from the Bible and the current tendencies.

【Key Words】 Season Of Israel, Sacred Calendar, Liturgical Dance Of Season, Sesonal liturgical dance.